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

2010-2017
그랜래피즈에서 라이프치히까지

2017년 총회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서문

새로운 출발은 기쁨과 도전으로 가득 찰 수 있다. 2010년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과 개혁주의에큐메니칼협의회(Reformed Ecumenical Council)가 통합하여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CRC)이 조직되었다. 통합총회(Uniting General Council) 참석자들은 참으로 즐겁고 환대가 넘친 축제였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통된 사명으로 두 기관이 연합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분명 멋진 일이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7:21에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신 기도를 더 친밀하게 확증했다.

필자는 지난 7년간 WCRC 가족을 두루 방문하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불어 배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아직도 한 두 곳에서는 WARC와 REC의 분열이 팽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분열이 사라졌다. 우리는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에베소서 4:3)일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는 “*연합으로 부름받고 정의에 헌신하라*”는 통합총회의 지시에 근거하여 지난 7년 동안 사역을 이끌어올 수 있었다. 통합총회 직후 우리는 WCRC 사역을 주도하는 다섯 가지 핵심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 사명, 가치 선언문을 작성하는 일에 착수했다. 다섯 가지 핵심지침은 선교와 연합, 정의, 신학, 그리고 에큐메니칼 참여다. 본 책자는 2010년 그랜래피즈(Grand Rapids) 총회 이후 핵심방향에 대해 완료된(또는 미완성된) 사역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또한, WCRC는 지나간 세월 동안 수많은 도전도 받았다. 도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재정적 제약 때문에 WCRC 세계 사무소가 독일 하노버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전 문제 전반과 스태프의 변화, 새로운 환경 적응 그리고 에큐메니칼 협력기관들과의 동역 유지가 추가 도전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RC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고 여러 사람과 스태프와 기관의 친절한 후원에 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평화,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을 능력있게 계속할 만큼 안정되고 건전하고 꾸준한 모습으로 이번 라이프치히 총회를 주관한다. 이 내러티브에서 우리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부서지고 투쟁하는 세상에서

연합(일치)과 정의로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동역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 우리 사역이 발전하여 회원교회들과 협력기관들은 발전하는 우리 사역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번 총회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모인다. 총회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시고 변화시키소서.”로 정해졌다. WCRC가 장차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으로 전진하면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분투할 때, 이 주제가 WCRC 가족의 기도가 되길 바란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리 필레이(Jerry Pillay)

WCRC 의장

도입 : 정의로 부름받고 도전에 시달리며 소망으로 가득찬 커뮤니티 세우기!

크리스 퍼거슨(Chris Ferguson) 총무

이 보고서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활동과 삶을 총회에서 다음 총회로 이어지는 여정이란 메타포를 이용해 기록하는 전통을 따른다.

2010년의 통합총회(Uniting General Council)는 개혁주의 전통에 뿌리내린 두 글로벌 기관의 연합 이상으로 많은 것을 표출시켰다. 그것은 7년이 넘게 지속될 큰 도전을 주었다! 더 깊이 살펴본다면, 통합총회는 WCRC를 연합체(communion), 즉 서로 연합된 교회들의 *코이노니아* 또는 교제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은사를 구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서 육화되고 성령을 통해 교회에게 은사로 주어지고 종교개혁 교회 전통의 핵심인, 성경적 회년-예언 전통의 장구하고 풍부한 역사와 아크라고백서와 벨하고백서에서 고양된, 온전한 의미의 정의로 부름받은 공동체(community)로 보는 새롭고 심화된 신학적 자기이해를 수용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에 살면서 도전적인 시기를 감내하며 진행 중인 사역, 즉 “건축 중”인 커뮤니티가 걸어온 여정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한다. 이것은 실행위원회의 업무와 비전과 사역, 지역협의회, 네트워크, 회원교회 그리고 직원들, 특히 제리 필레이(Jerry Pillay) 의장과 세트리 니요미(Setri Nyomi) 총무(2014년 9월까지)를 반추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다. 필자는 여기서 이 발제를 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긴다. 필자가 이 여정에 직접 참여한 것은 2014년 후반에야 시작된다. 어쨌든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 추진하는 힘겨운 작업을 개관하는 것은 필자에겐 영예로운 일이다. 2014년에 열린 커뮤니티 실험회의(Consultation on Communion)는 분명하게 일치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묘사했고 또한 동시에 정의에 헌신하는 커뮤니티로서 그 일치를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실체로 구현하기 위해 걸어야 할 머나먼 진로로 묘사했다.

통합총회는 미래를 위한 인상적인, 매우 광범위하고 야심적인 비전과 아젠다에 착수했다. 새로 선출된 실행위원회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통합총회의 비전을 전략계획으로 수립했고 2011년에 그 계획을 채택했다. 전략계획은 헌법적 지시와 통합총회의 비전을 “개혁교회들의 커뮤니티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 WCRC의 사명은 이렇게 진술되어 있다.

전 교회의 갱신을 위한 선물인 개혁주의 고백서들의 유산에 기대어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연합과 정의에 헌신하면서 다른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독교 일치 그리고 예배와 신학과 영성의 갱신, 정의, 빈곤퇴치와 올바른 관계 구축, 창조의 보전, 종교간 관계, 화해와 치유, 평화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위해 호혜적으로 사역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세계선교에 참여한다(2011년 실행위원회 회의록).

전략계획은 비전과 사명 그리고 종교개혁에 근간한 신앙과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 총회까지 7년 동안 전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섯 개의 전략적 또는 “핵심적” 방향을 설정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개혁교회들을 통합하는 커뮤니언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국제적 관계는 예수께서 기도하며 바라신 일치를 입증할 것이다. WCRC는 세계교회가 정의와 평등과 화해와 평화구축의 문제를 깨닫고 신학적, 실천적으로 다루는 능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WCRC는 이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자료를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헌신된 네트워크 복합체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리더들을 위해 중요한 훈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으며 회원교회들의 선교에 신학적, 실천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의 핵심은 회원교회들이 낸 수익금으로 지원되는 핵심 활동들로 유지될 것이다. WCRC는 다음 핵심 방향을 활용하여 그 여정을 다각도로 시작할 것이다.

- 사명(선교)
- 커뮤니언
- 정의
- 신학
- 에큐메니칼 참여

(2011년 실행위원회 회의록)

지극히 야심찬 이 아젠다는 그 여정을 위한 사역 스타일과 뚜렷한 정체성 표지를 확실히 남겼다. 즉 정의가 없는 연합을 거부하고 연합이 없는 정의도 거부하며, 언제나 개혁하는 개혁교회는 에큐메니칼 참여에 헌신하며 네트워크에 근간을 두고, WCRC 지역들은 회원 기부금으로 핵심 활동을 유지한다(상세한 내용은 1장 참조).

연합체를 세우고 정의를 증거하는 이 여정은 곧 재정유지 때문에 상당한 도전에 부딪혔다. 회원들이 지지하는 핵심 활동을 보장하고 정의에 참여하는 커뮤니언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정한 기부금 형식이 채택되었다(재정 상태와 회원기부금과 전반적인 핵심 비용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8장에 나온다). 회원 기부금에 대한 새롭고 더 공정한 방법과 데이터베이스 현대화를 병행하면서 회원교회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회원교회 기부금이

늘어나고 개선되긴 했지만, 회원 기부금만으로 전반적인 핵심 예산이 온전히 유지된 적은 없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 요동치는 환율, 제네바의 고물가,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된 일부 핵심적인 기부 교회들의 자원 축소 등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맞물려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새로운 재정기부방식으로 대형 교단들의 기부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했으나, 자원 축소와 회원 및 교단 모금이 줄어들면서 이 거액의 증액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재정적 도전이 너무 심각하여, 정의 사역 프로그램에 최우선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에 살면서 전임으로 사역하던 정의 분과 실행간사가 은퇴하자 그를 교체할 충분한 자원을 핵심 예산에서 충당하지 못했다. 임시방편으로 도라 아르체-발렌틴(Dora Arce-Valentin)이 제네바에서 정규직으로 임명받을 만큼 충분한 기금이 협력 기부금을 통해 모금될 때까지 쿠바가 파견한 컨설턴트로 1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 재정 상태가 유지될 수 없었고 전략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실행위원회는 모금과 자원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개발디렉터 자원봉사자를 임명하는 것과 세계선교협의회(Council for World Mission, CWM)와의 협력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세계선교협의회와의 협정으로 백만 파운드라는 매우 너그럽고 중요한 기부금을 기증받았다. 이 기부금의 원래 목적은 천만 파운드의 기부기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이 기부금은 마찬가지로 너그러운 독일교회들, 특히 복음주의교회연합(Union of Evangelical Churches)이 기증한 기부금들과 함께 WCRC의 고갈된 예비자금을 재구축하는데 기여한 몇 개의 중요한 기부금 중 하나였다. 이것이 WCRC의 가시성과 유지가능성에 대한 기부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긴 했지만,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하려고 한 대자본 캠페인이란 원계획은 실행불가로 판명되었다. 개발 디렉터의 위치는 유지되지 않았다. 특별 기부자 기반으로는 이런 경제풍토 속에서 기부기금 계획이 실행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모금 방식이 좀 더 지역기반의 상황적인 접근법으로 재조정되었다.

지속적인 예산 도전을 고려해 볼 때,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며 장기적인 유지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WCRC가 제네바를 떠나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연구와 회의와 논쟁을 거친 후 독일 하노버로 이전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2014년 1월 이후로 하노버에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이 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7장 참조). 재정적 관점에서 하노버로의 이전은 WCRC가 재정 위기의 최악을 벗어났다는 점과 만약 이전하지 않았다면 파산하여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거의 확실했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을 언급해야만 하겠다. 현재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지만, 회비를 통한 핵심예산 충당에 큰 도전이 없지는 않다(세부 정보는 8장에 나온다).

이전 결정은 그 모든 긍정적 결실에도 불구하고 WCRC의 야심찬 전략계획을 실행하는 역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전은 중요한 인사 변동을 통해 그리고 추가로 사무실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다른 문화와 언어에 적응해야 하는, 시간 소모적이고 복잡하고 산만하게 하는, 일까지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역량을 불안정하게 하는 뚜렷한 효과를 통해 직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제도적 기억과 인프라에 미친 충격이 컸다. 2016년이 되어서야 겨우 데이터베이스와 재정적, 행정적 체계가 충분히 자리를 잡고 가동하기 시작했다.

에큐메니칼 충격도 상당했다. 흑자는 에큐메니칼 센터를 떠나 이전하는 것을 에큐메니칼 참여에서 멀어지는 일종의 조치로 해석했다. 상징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WCRC가 덜 가시적이고, 덜 접근가능하고, 덜 참여한다고 이해되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크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우리 커뮤니티 내부에서조차 아직도 우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고 우편물을 여전히 제네바로 발송하는 이들이 많다! 왜 회원교회 대부분이 있는 글로벌 사우스로 이전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제리 필레이 의장이 설명했듯이, 이전의 충격은, 실질적이든 관념적이든, 전략계획의 실행을 방해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여정의 불가피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 충격을 통해 준비된 우리는 총회 직전 마지막 기간의, 즉 2011년 전략계획의 “최종 단계” 부록에 실려있고 2016년 실행위원회에 발표되어 인준받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과 이전과 후속 영향 이외에, 통합총회의 비전을 원만하게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은 리더십의 변화였다. 재임 중인 세트리 니요미가 2014년 4월 1일에 두 번째 임기를 마감하도록 예정되었기에, 2012년 5월까지의 실행위원회가 새로운 총무를 선출하는 절차를 정했다. 실제로는 인선 및 선출 과정이 만 2년이 넘도록 늘어졌고 3번의 후보 검증을 거친 후 2014년 5월에 완료되었다. 필자가 2014년 5월에 선출되어 동년 9월에 임직받을 때까지 세트리의 임기가 5 개월 더 연장되었다.

정의에 헌신한 커뮤니티가 재정 위기와 이전 결정과 새로운 리더십 인선 때문에 오랜 과도기와 변환기를 지나게 되었다. 이전은 항상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스태프와 실행위원회는 문제를 바로잡고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회원교회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증거하는 데 영웅적이진 않더라도 의미심장한 노력을 기울였다.

뒤에 오는 장들은 앞에서 언급한 핵심방향을 유지하려고 수 년간 사역한 내용을 개관한다. WCRC가 직면한 의미심장한 도전들이 있었건 없었건, 그것은 공사 중인 커뮤니티에게는 인상적인 간증이다.

이 장에서 보고된 여정은 정의에 헌신한 커뮤니티로서 “평화의 띠로 묶여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비전에서 출발하여 세계 변혁을 위한 교회 갱신을 위해 개신교 종교개혁 500주년(또는 그 이상)을 축하하는 역사적 순간을 품기 위한 여행이다. WCRC는 예상치 못한 도전들에 부딪혔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치와 정의에 대한 증거가 빛을 발한다.

제 1 장 : 새로운 출발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총회는 공식적으로 2010년에 처음 모였다. 그 해에 개혁주의에큐메니칼협의회(Reformed Ecumenical Council)와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이 미국 미시건주 그랜래피즈(Grand Rapids)에서 열린 통합총회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태어난 WCRC는 108 개국 8천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 두 에큐메니칼 기관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로서 함께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연합을 통해 교회 사역에 대한 새 소망과 에너지로 충만한 기관이 되었다.

새로운 기관의 비전은 “개혁교회들의 커뮤니언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2011년에 재정의된 새 사명에 따라 커뮤니언은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 기독교 일치 그리고 예배와 신학과 영성의 갱신
- 정의
- 빈곤퇴치
- 올바른 관계 구축
- 창조와 보전
- 종교간 관계
- 화해와 치유, 평화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변화

그랜래피즈 통합총회 이래로 추구한 “연합으로 부름받고, 정의에 헌신하라”는 주제는 새로운 사명과 비전에 대한 담대한 연합적 증거였다.

전략계획

통합총회에서 발생한 활기를 기반으로 실행위원회는 2017년 차기 총회까지 조직을 이끌 전략계획의 개발에 곧바로 착수했다. 201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전략계획은 WCRC 헌법에 서술된 세 가치를 긍정했다.

1.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우리가 천명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보여주고 실천하며, 그 사역을 통해 모든 회원교회가 각자의 은사를 공유하도록 만들며, 세상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드높이고 그것에 헌신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사랑과 돌봄으로 회원들을 섬기며 상호간 후원과 양육을 장려한다

2.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그 직제와 활동으로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적 차이점으로 인한 분열의 힘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누구도 다른 어떤 연유로, 즉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 또한, 어떤 개인이나 교회도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대한 지배를 주장하거나 행사해선 안 된다.

3.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창조의 구속, 회복, 및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 커뮤니티는 서로에게서 세례의 은사를 인정하는 성경적 소명과 사역에서 연합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보전을 함께 증거하라는 소명을 천명한다.

WCRC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핵심 방향이 정해졌다.

1. 사명(선교)

WCRC는 하나님의 총체적 선교로 소명을 받고 새로운 선교참여방법을 찾도록 위탁받았다. WCRC는 커뮤니티으로서 연합 선교를 강화하고 교회들이 21세기에 적절한 효과적인 선교를 하도록 만드는 성찰을 자극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대리자가 되라는 소명 때문에 선교가 WCRC와 그 회원교회들의 모든 사역의 중심을 차지한다.

2. 커뮤니티

WCRC는 전체 커뮤니티의 삶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 커뮤니티으로 WCRC는 *코이노니아(koinonia)*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코이노니아*란 당신의 자매형제들이 당신의 몸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계시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 “모든 종류의 불의, 인종차별, 분리, 그리고 부자유에 철저히 도전할 때¹ 우리 삶에서 이 실재가 분명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WCRC는 정의가 없이는 어떤 연합도 있을 수 없고 연합이 없이는 어떤 정의도 없다고 확인한다. 어떤 식으로든 연합의 소명과 정의의 헌신을 분리하면 *코이노니아*의 기초를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서로의 세례를 인정하고 서로를 식탁으로 초대하고 서로의 사역 진정성을 긍정하는 온전한 커뮤니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의 일치라는 선물을 긍정한다(2011년 전략계획)

¹ Lima text on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3. 정의

WCRC는 성경과 신학에 근거한 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의 함축의미를 의식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 정립과 경제와 지구의 정의, 경제 정의, 빈곤퇴치, 성별 정의, 창조와 보전, 화해, 종교간 참여, 치유,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위한 사역을 포함한다. 우리 커뮤니티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자기이해는 WCRC와 회원교회와 지역협의회가 정의를 위한 예언적 외침에 헌신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4. 신학

WCRC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신학교와 신학자, 리더 및 잠재적 리더들을 함께 모아 WCRC 안팎에서 개혁신학의 신선한 이해와 개혁주의 정체성의 새로운 표현을 발견하고 신학센터와 개인들의 자원에 힘입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는 것을 구상한다. WCRC는 그 가치와 신념을 융합시켜 교회라는 덩어리로 만들고 현재 실상을 반영하는 상황적 신학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5. 에큐메니칼 참여

WCRC는 대제사장적 기도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간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더 큰 가족에 소속되어 다른 이들과 동역하라는 부름을 받고 다른 에큐메니칼 단체들과 긴밀하게 동역하고 다른 세계 커뮤니티들과 함께 하는 위원회와 대화들에 헌신함으로써 이 핵심방향을 표현한다.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개혁주의 가족과 전체 교회 모두를 위한 것이다. 개혁주의는 에큐메니칼 특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WCRC는 계속해서 기독교 일치와 에큐메니칼 선교를 촉진하는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 다섯 가지 핵심방향은 “갱신된 사역 방식”과 “전 커뮤니티를 섬길 신선한 방법들”을 통해 지역별 단체와 국가적 교회와 지역회중과 관계맺기 위한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실행될 것이다. 그 목적은 우리 신념을 육화시켜서 우리 방법이 우리 가치를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A. 네트워킹

네트워킹은 효과적 소통과 상호 계발과 지역교회와 지역협의회를 훈련, 위임하는데 중요하다. 우리가 진정한 커뮤니티가 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

회원교회의 자원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WCRC 간사진은 지역들과

회원교회가 서로 접촉하도록 만드는 정보교환소로 기여할 수 있다. 글로벌 간사진 스텝은 광범위한 프로그램 영역에서 공헌해야 한다. WCRC는 글로벌 간사진과 지역협의회들의 소통 및 네트워킹 역량을 개발, 활용하여 WCRC 자원이 회원교단들에게, 또한 그들을 통해 지역회중까지 전달되게끔 참여할 것이다.

B. 리더십 개발

리더십 개발은 커뮤니티의 가치와 배움과 사역을 교회의 삶으로 통합하고 전체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회원교회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상호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신학 자원과 옹호와 다른 자원들을 모으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WCRC는 커뮤니티로서 지지하는 가치를 육화함으로써 성숙해질 것이다. WCRC 리더십 개발은 기존 리더들의 동반과 계속개발과 그들의 멘토링과 기타 서번트리더십 소질을 개발하면서 청소년위임과 성별 정의, 장애인 포용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리더 개발은 더 넓은 에큐메니칼 운동들에 참여하고 거기서 배우고자 하는 비전으로 리더들을 고취하는 것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 WCRC의 사명과 가치를 융합시키는 것이다.

C. 지역별 참여와 위임

지역별 참여와 위임(Regional Engagement and Empowerment)은 WCRC 경험을 지역의 실제 경험과 상황에 맞추기 위해 신학적 기초를 쌓고 WCRC의 비전과 사명과 (반추와 행동 계획을 포함하는) 활동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이다. 지역들이 전체에 참여하기 위한 기금을 적절히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다. 지역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은 지역들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면을 받을 것이다. 가능한 한 이것을 협력하여 이루어야 한다. 지역들은 또한 서로를 풍요하게 해줄 수 있는 특수한 필요와 자원과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커뮤니티를 실현하려면 실행위원회와 스텝과 지역들 사이에 대화 과정이 필요하다.

D. 자원 배분과 전체 모금의 적절한 확보

우리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두가 기부하고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윤리적으로 잘 투자하여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이것은 재정과 인력과 기타 자원을 포함한다. 자원은 WCRC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 존재하지만, 커뮤니티의 삶과 사역을 위해 자원을 찾아내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WCRC는 가족으로서 서로 자원을 나누고 나눔의 문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의 모든 지체가 재정적으로나 기타 가치있는 방식으로 기여하도록 강력하게 권면해야 한다.

E. 소통

하나님의 선교와 참된 커뮤니티와 정의를 실천하고 리더와 네트워크와 나눔을 개발하는 WCRC 능력은 우리에게 소통경로와 반응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이것들이 전부 중앙집권화될 필요도 없고 사실 간사진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된다. 지구촌의 모든 부분에 존재하는 커뮤니티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에너지를 얻는다. 고로 공동체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에게 제공할 것, 다른 지체와 나눌 것, 다른 지체에게 받을 것이 있다. WCRC는 소통을 위해 발전하는 신 기술을 사용할 기회가 있다. WCRC는 이러한 용도에 잘 투자하겠지만 모든 지체가 이 기술에 똑같이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의식할 것이다.

F. 협력

WCRC는, 방법론이자 사역참여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WCRC는 교회와 에큐메니칼 단체와 선교단체들 뿐만 아니라 공통된 목적과 헌신을 공유하는 운동들과의 협력을 소중히 여긴다. 이것은 WCRC와 공통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정의운동을 포함한다. 우리는 함께 하면 더 좋아진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WCRC는 에큐메니칼, 지역별 협력체와 기관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WCRC는 또한 선교와 교회갱신, 음식, 무역, 정의, 소통, 그리고 기타 공동체가 직면한 중대사들과 같은 주제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업무 관계를 구축한다.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할 때 협력 가능성을 먼저 탐사할 것이다.

전략계획은 방법론을 통해 다섯 가지 핵심 우선 프로그램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마감했다. 실행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WCRC가 “기관 전체가 할 수 있고 자원 한도 내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했다고 주목했다... 우선순위는 ... 인적, 재정적 가용자원을 가지고 WCRC간사진이 지역들과 동역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

실행위원회는 전략계획의 틀을 통해 WCRC 발전을 정기적으로 추적하면서도, 2016년에 전체 계획을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크리스 퍼거슨 총무의 보고에 기초하여 WCRC를 총회에 강력하게 제시하기 위한 단기적인 “최종단계” 계획을 채택했다.

... 전략계획의 이 최종단계에서 2016-2017년의 핵심 도전들의 성취를 극대화하는 방편으로 그 계획을 마감하는 데 집중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교회갱신이 에큐메니칼 운동과 종교간 대화와 다른 글로벌 시민사회와 더불어 세계변혁에 기여하기 위해, 영감을 불어넣고 동원하고 모든 수준에서 회원교회들과 전체 커뮤니티의 사명을 강화, 고양하기 위해서 2017-2024

WCRC비전 제안서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채 총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회의준비를 함으로써 2017년 총회에서 우리의 성공과 단점과 배움을 보고할 기회도 있다(로마서 12:2, 누가복음 4장, 예레미야 10:10). (2016년 실행위원회 회의록).

이 “최종단계”는 다섯 가지 핵심방향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고 총회 직전 해에 한정된 수의 중요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 보고서의 다음 다섯 장은 2011년 전략계획과 그 “최종단계”에서 도출된 우선순위를 처리하고 실행한 방식을 탐구한다. 그 다음에는 WCRC가 최근 7년 동안 겪은 도전에 관한 장이 나오고 WCRC 재정을 개관하는 장이 뒤따른다.

(주: 전략계획 전문은 WCRC 웹사이트의 통치(Governance) 항목 중 2011년 실행위원회 회의록에서 찾아볼 수 있고, “최종단계”는 2017년 회의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 2장 : 선교(사명)

WCRC는 하나님의 총체적 선교로 소명을 받고 새로운 선교참여방법을 찾도록 위탁받았다. WCRC는 커뮤니언으로서 연합 선교를 강화하고 교회들이 21세기에 적절한 효과적인 선교를 하도록 만드는 성찰을 자극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대리자가 되라는 소명 때문에 선교가 WCRC와 그 회원교회들의 모든 사역의 중심을 차지한다(2011년 전략계획).

WCRC와 그 회원교회들은 기독교 신앙이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만인을 위한 정의를 촉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반응한다고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창조의 갱신이다. 이 역동적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WCRC는 선교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창조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경계과 장애를 뛰어넘는 것으로 이해하고 경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교에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기쁨과 책임이다. 선교적 참여의 우선적인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다. 정의와 화해와 변화와 구속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모으는 글로벌 커뮤니언 안에서 선교를 수행하더라도 말이다.

선교, 즉 하나님의 정의를 증거하고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는 것은 예속과 식민주의와 기독교 선교 사이의 역사적이고 오래된 연결을 끊으려는 의도적, 지속적인 노력을 요한다.

WCRC는 선교가 종교다원 사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교회들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선교를 하려고 추구한다.

전방선교

“전방선교(Mission in the Frontline)”에 대한 첫 회의는 2013년 11월 독일 브렉클룸(Breklum)에서 열렸다. 처음에는 폭력과 고통의 맥락에서 특히 무슬림-기독교 긴장에 초점을 두고 회의가 계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세계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가나, 케냐,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미얀마,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파키스탄, 시리아, 그리고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다. 참가자 대부분은 종교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 살고 있는 회원교회 소속이다.

참가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공유했고 종교적 정체성과 그것의 가시성과 같은 문제들을 함께 토론했다. 서로 다른 종교의 신자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 다원주의 사회의 핵심 개념인 동등한 시민권. 마지막으로, 이러한 긴장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를 여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

2016년 11월 전방선교회의의 차기모임을 위한 기획그룹이 레바논에서 중동 회원교단들의 리더와 목회자들과 함께 모였다. 며칠 동안 진행된 이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대화는 양측을 근본주의에 맞서 강해지도록 하는 방편이자 현 상황의 폭력과 전쟁에 직면하는 공통된 도구이다.
- 고립을 타파하고 WCRC와 같은 세계적인 가족과 연결될 필요성
- 종교적 다양성과 종교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들
- 중동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교훈들과 과거 그 지역을 통제하려한 다른 세력들이 소수자들과 종교들을 이용한 방식들
- 종교적 긴장을 넘어서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다뤄야 할 중요성
- 교회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 공통부분을 발견하려는 필요
- 중동 교회들은 공통된 틀과 예언자적 목소리를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 고유 공간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계적 가족과 국제적 공동체가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과 교류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체험과 역사 그리고 무슬림 세계에서 수백 년간 살며 선교한 그들의 역량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께서 공동체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천면하기.

이 그룹은 또한 다음 회의를 위한 주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다음 협의는 2017년 11월에 개최하기로 계획되었다. 거기서 다루게 될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 교회는 가치를 다루고 정치적 파당을 지지하지 않는 예언적 소리다. 교회는 가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원한다. 교회의 유일한 아젠다는 모든 인류의 가치다.
- 선교 전략은 선교가 항상 상황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정의와 평화와 화해의 가치를 천명하는 교회. 교회는 힘겨운 예언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 항상 최전방의 언어가 출발 언어다
- 선교는 해체에 관한 것이다. 교권도 포함된다.
- 미디어 배후 세력을 이해해야 하는 도전. 기존 미디어에 비판적인 소셜미디어 이용.
- 우리가 예언적이 되려면 참여하면서 가치를 드높이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당신은 고립된 상태에서 예언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 차별과 핍박과 순교

2015년 11월 제리 필레이(Jerry Pillay) 의장은 알바니아에서 개최된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의 “차별과 핍박과 순교 : 함께 그리스도 따르기”에 관한 회의에 WCRC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모임의 목적은 “차별과 핍박과 순교를 겪고 있는 교회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교회로서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함께 구상하는 것”이었다. (개혁주의, 가톨릭, 루터교, 정교회, 그리고 오순절을 포함한) 여러 전통에서 온 약 150명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폭력과 핍박에 대해 숙고했다.

이 회의의 메시지는 “기독교 증거를 강화하기 위해선 기독교회들 간의 연대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서로 그리고 다른 종교공동체를” 핍박한 과거에 대해 회개하면서 다음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헌신한다.

- a.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리고 차별, 핍박받는 모든 이들의 경험을 **더 경청하고** 고난받는 공동체들에 더 깊이 참여하는 데 **헌신한다**.
- b.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차별과 핍박을 겪는 모든 이들 뿐만 아니라 차별하고 핍박하는 이들의 변화를 위해 **더 기도하는 데 헌신한다**.
- c. 존중과 존엄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분명하고 강력한 목소리로 함께 **더 많이 외치는 데 헌신한다**.
- d. 효과적인 연대방식과 치유와 화해와 압제, 핍박받는 모두의 종교자유를 위한 효과적인 연대와 지원 방식을 찾기 위해 상호이해 가운데 **더 많이 행동하는 데 헌신한다**.

이 회의는 도전적인 시대를 겪고 있는 이들의 체험을 듣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함께 분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a.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차별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더 현저하게 포용하도록.
- b. 다양한 전통을 가진, **지역과 국가와 지방에 있는 모든 기독교 기관들이** 핍박받는 자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도록 그들을 위해 지역별로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일하도록.
- c. **모든 교회들이** 다른 공동체들과의 대화와 협력에 참여하되 차별과 핍박 앞에서 계속 경계하고 신경쓰며 용기있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마태 10:16).
- d.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핍박자들이** 남용을 중단하고 모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권리를 긍정하도록.
- e. **모든 정부가** 모든 사람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근본적인 인권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우리는 또한 정부와 국제 기관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선의를 가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도록 호소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하고 계속 진행중인 갈등의 조정을 추구하고, 특히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에게 유입되는 무기의 유통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 f. **모든 미디어가** 타종교공동체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차별과 핍박을 포함한 종교자유 훼손에 대해 적절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도하도록.
- g. **모든 교육 기관들이** 젊은이들에게 특히 인권과 종교적 관용, 과거의 기억의 적대감의 치유, 그리고 평화로운 갈등해소와 화해의 수단을 가르칠 기회와 도구를 개발하도록.
- h.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빈곤과 인간 존엄성무시가 폭력에 기여하는 주요인임을 깨닫고 정의와 평화와 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유럽의 세속화

2016년 2월 헝가리에서 “세속화된 상황 속의 선교”라는 주제로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세계선교협의회(Council for World Mission) 그리고 복음주의선교사역(Evangelische Missionswerk)과 협력하여 공동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지형 이해하기 : 유럽에 사는 우리는 누구인가”, “세속화와 문화”, “교회들의 자리 및 역할과 세속화를 연결하기”(고백적/청년 관점), “세속화된 상황에서 정체성 추구” 그리고 상이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연구들이 논의되었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세속 시대”(2007)란 자기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점증하는 세속주의는 처음엔 인간관계와 “이 세상”의 다른 문제들에 종교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행복과 이 세상의 돌봄을 포함한 평범한 삶의 미덕들을 새롭게 긍정하는 데 반응했다. 세속주의는, 부분적으로 종교의 옛 형식이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는 새 시대를 살게 된 초기근대인의 자의식에 입각한, 역사적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의식에 반응했다. 그러나 점증하는 세속주의는 또한 “이 세상”이 그 내재된 비인격적 인과질서에 따라 움직였다는 이해도 의미했다. 그리고 이것이 근대 과학의 발흥을 보증하는 데 기여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의 본문보다 현실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했지만, 더 광대한, 초월적 전체 개념과의 연관성을 자주 벗어나게 되었다.

컨퍼런스는 “세속화”가 “자연스런 흐름”이며 우리는 그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데 일반적으로 일치했다. 그러므로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라고 권면할 수 없었다. 미래를 준비하고 빚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염려와 불안은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는 그 흐름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다음은 다종교 세상에서 증거하는 것에 관한 요점들이다.

- 모든 종교의 사람들과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고 정의를 회복하고, 기억을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기.
-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을 강하게 하며... 또한 타종교 추종자들의 관점을 참작하도록 권면하기.
- 다른 종교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종교간 지지에 참여하기.

개혁주의협력기금

WCRC는 개혁주의협력기금(Reformed Partnership Fund)을 통해 교회과 그 주변 공동체의 삶에,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중요한 선교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회들에게 소액의 보조금과 다른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의 선교에 동참한다.

WCRC는 그랜래피즈 총회 이후 수년 동안 광범위하고 다양한 선교지향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재난구제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했다. 나이지리아의 청소년 및 과부 개발센터, 콩고의 여성학대 등록 및 수집 프로젝트, 미얀마의 선교적 교회 센터, 말레이시아의 토착교육센터, 르완다의 기독교 라디오, 레바논 체류 시리아 아동을 위한 난민학교, 시리아의 청소년프로그램, 스리랑카의 커뮤니티홀, 앙골라의 여성직업훈련, 짐바브웨의 가금농장, 그레나다의 리더십훈련, 콩고의 AIDS 검사, 부르키나파소의 컴퓨터훈련, 말라위의 건강센터들, 인도의 평화축구 및 빈곤퇴치 촉진 미디어프로젝트, 그리스의 여성쉼터, 마다가스카르의 커뮤니티학교, 쿠바의 버스수리, 우루과이의 데이센터, 말타 체류 난민을

위한 소액용자프로젝트, 이집트의 기독교-무슬림 대화, 나이지리아의 평화구축, 태국의 리더십훈련, 남아프리카의 신학네트워크, 그리고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우간다, 파키스탄, 북한, 태국, 바누아투, 및 미얀마를 위한 응급구제에 보조금이 전달되었다.

개혁주의협력기금(Reformed Partnership Fund)의 모금은 대부분 WCRC 협력체인 *세상을위한빵(Brot für die Welt)*, *오토베르 밀레(Otto per Mille)*, 그리고 *복음주의선교사역(Evangelischen Missionswerk in Deutschland)*에서 나온다. 물론, 이 프로젝트들 중 다른 WCRC 회원교회들이나 에큐메니칼 협력체들의 지원을 받은 곳도 많다.

제 3 장 : 커뮤니티

WCRC는 전체 커뮤니티의 삶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 커뮤니티으로 WCRC는 *코이노니아(koinonia)*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코이노니아*란 당신의 자매형제들이 당신의 몸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계시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 “모든 종류의 불의, 인종차별, 분리, 그리고 부자유에 철저하게 도전할 때” 우리 삶에서 이 실재가 분명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WCRC는 정의가 없이는 어떤 연합도 있을 수 없고 연합이 없이는 어떤 정의도 없다고 확언한다. 어떤 식으로든 연합의 소명과 정의의 헌신을 분리하면 *코이노니아*의 기초를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서로의 세례를 인정하고 서로를 식탁으로 초대하고 서로의 사역 진정성을 긍정하는 온전한 커뮤니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의 일치라는 선물을 긍정한다(2011년 전략계획)

2010년, 세계개혁교회연맹(WARC)과 개혁주의에큐메니칼협의회(REC)가 통합하여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을 창설했을 때, 이 새 기관은 “연합으로 부름받고 정의에 헌신하다”를 그 주제로 정했다. 이것들은 WCRC가 연합기관으로 처음 시작할 부터 그 사명과 증거의 초석으로 이해되었다.

커뮤니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매형제 모두가 참여하는 실재로 이해되는 *코이노니아*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실재는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누고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불의와 인종차별과 분리와 부자유에 도전할 때 나타난다.

커뮤니언은 신학적 이해를 촉진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위기 문제들에 관한 교회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회원교회들의 증거를 증진하고, 세계 곳곳의 에큐메니칼 동료 및 협력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들을 연합시키기 위해 일한다. WCRC는 교회 일치를 증진시키며 선교와 신학적 반추와 영성, 교회갱신, 정의 그리고 대화를 위한 공통된 계획을 조직화한다.

WCRC 사역의 모든 것은 커뮤니티를 통해, 커뮤니티를 위해 다각도로, 특히 어떤 활동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회원교회나 더 넓은 에큐메니칼권을 통한 협력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러나 이 장에서 다루는 커뮤니티의 영역들은 WCRC가 스스로 더 친밀한 연합체가 되기 위해 동역하는 방식에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커뮤니언 실험회의

² Lima text on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연맹이나 협의회로 남는 대신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일하면 회원 교회간의 결속과 조직 전반의 결속을 심화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목적있는 헌신이었다. 2010년 통합총회와 금년 총회 중간에 이것에 대한 과정을 실험하기 위해 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2014년 2월 전세계 50 개 교단 지도자들이 커뮤니티 실험회의(Consultation on Communion)로 모여 커뮤니티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5월 WCRC 실행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교회에서 연합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인식처럼 “커뮤니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회의와 보고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였다.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유지할 지와 커뮤니티가 안팎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고서는 커뮤니티에 대한 잠재적 도전의 긴 목록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관찰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연합체로서 함께 하는 우리의 여정이 결코 끝나지 않았고 함께 살아가며 타인에게 개방적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계속하고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겸손하게 전진하여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분별한다.”

보고서의 권면 내용에 포함된 내용에는 더 큰 종교간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커뮤니티 구축에 참여하는 것을 늘리는 방법들과 목회적이고 관계적이며 상호존중과 상호성과 책임감으로 표가 나는 회원교회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과 기도와 의사결정의 분별력을 위한 더 큰 역할들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나라와 문화와 예배양식들을 인정하는 커뮤니티의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는 직접적인 만남을 지속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그리고 이 모임들이 회원교회들이 모이기에 안전한 장소가 되길 바라는 바램도 있었다.

또한, WCRC의 글로벌 신학 연구소(Global Institute of Theology)와 다른 수단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양육하는 것도 권면되었다. 이것은 WCRC의 실천이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했다. 이 회의는 또한 WCRC 회원 끼리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역협의회들

WCRC의 회원교회들은 지리적 구역으로 분류되며 이 중 몇 곳은 지역협의회로 인정받고 있다. WCRC는 지역협의회에 의지하여 지역의 문제와 투쟁과 축복을 이해한다. WCRC는

지역 교차적 모임들을 유치하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세계적으로 사역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성장하려고 애쓴다(4장 참조).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노출되는 것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종종 이 회의의 아젠다는 의도적으로 개최 지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한다 이런 지속적 과정 덕분에 WCRC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연합하는 것의 의미를 회원들에게 알리면서 지역적으로 사역을 지원할 수 있다.

2011년 WCRC가 독일의 에큐메니칼 기관인 *개신교선교사역(Evangelische Missionswerk)*과 새로운 협력 협정에 서명했고, 이 협력에 지역협의회 두 곳이 참여했다. 그 협력으로 라틴아메리카 협의회인 AIPRAL이 강화되었고 의미있는 프로그램과 라보스(La Voz)지 제작을 통해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 협력으로 아프리카 개혁교회 커뮤니티(African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이 부활하여 아프리카 회원교회들의 선교를 강화시키는 협의와 추가 회의를 주최할 수 있었다. ACRC는 다양한 지역내 프로그램과 집회를 조직했다.

2012년 제네바 회의는 동북아(NEAAC)와 아프리카(ACRC), 유럽(WCRC Europe), 라틴아메리카(AIPRAL), 그리고 카리브해와 북미(CANAAC) 등 공인된 협의회의 지역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간사진과 지역사무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와 프로그램들을 확인했다. 대표들은 자기 사역의 배경과 자신들이 대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제공했다. 이로써 그 그룹이 어느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신중하게 지역사무소의 손에 남겨져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룹들 사이의 소통과 WCRC 간사진과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헌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의사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의전이 합의되었다. 여기에는 지역지도자들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연례회의 헌신과 지역 우선순위 뿐만 아니라 재정 정보의 공유도 포함된다.

실행위원회는 2016년 회의에서 지역과 지역협의회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그들과 커뮤니티 전체의 관계를 논했고 지역협의회 조직 방식을 다루었다. 인도네시아와 남아시아, 두 협의회가 새롭게 모이기 시작했고, 다른 두 지역 즉 중동과 태평양에서 조직 구성을 위해 협조를 구했다.

그래서 2017년 2월 하노버에서 지역들과 협의회들에 관한 더 광범위한 전략 문제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2012년 제네바 회의에서 결정한 권면과 계획을 재고하기 위한 지역위임회의(Regional Empowerment Consultation)가 열렸다. 임원들과, 공인된 협의회를 인정하건 안 하건, 지역 리더들과 실무 스태프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것은 커뮤니티의 모든 부분에서 기인한 대표성을 보장했다.

소통과 회비, 프로젝트,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에 관해 간사진과 지역들 사이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헌신이 이루어졌다. 또한, 매년 실행위원회 회의 기간에 지역 리더들과 실행위원회 스태프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장치를 결정했다. 지역협의회들의 상황과 구성에 관한 제안서들이 총회에 제시될 것이다.

회원교회들

WCRC는 필요가 있을 때 회원교회들에 반응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추구한다. 연합체 건설이란 이 중요한 측면은 특정 사건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도 있지만, -수년 동안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정의와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려고 일하는 회원교회와 동행하는 것처럼 복잡할 수도 있다. 아래 언급된 지역들은 WCRC가 회원들과 더불어 동행해 온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중동

불안이 거의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보이고 기독교 신앙이 항상 위협받는 세상의 한 지역에서, 회원교회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신실한 사역을 계속한다. WCRC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이 형제자매들의 편에 선다.

2015년 레바논에서 개최된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WCRC는 중동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의 중에 성명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정된 경청팀이 중동 국가에서 사역하는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기독교의 요람이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거리가 비유적, 문자적으로 박살이 났다”라고 문서는 말했다.

이 문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영감을 받아 교회가 “갈라진 벽을 고치는 자요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자”(이사야 58:12)가 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상기시켰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종종 이웃으로서 평화롭게 살면서 일상의 대화를 즐기고 공동체의 선을 위한 공통된 가치를 공유했다. 우리는 급진적 종교운동에서 파생된 관계의 변질을 애써 해고 종교가 정치적 아젠다를 위해 이용되는 방식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리고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크리스천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남아있다. 그들의 공동체 내 역할과 영향력이 그 숫자를 훨씬 넘어선다는 증거를 우리는 보았다.”

실행위원회의 레바논 회의는 “우리에게 이 지역 회원들과의 연대를 표현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헌신의 갱신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성명서는 모든 중동 사람의 고난에 대한 글로벌 인식과 시리아 내 폭력종식과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성명서는 또한 WCRC 임원들이 중동 교회들 사이의 단결을 강화시켜 주도록 촉구했다. 또한 중동 밖의 회원교회들도 중동의 사람들과 교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국 정부가 그 지역의 불안정에 기여한 점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권면했다. 회원교회들은 또한 믿을 수 없는 도전들을 당하고 고난받고 전쟁과 불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빈번한 요청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중동의 자매형제들로부터 영감을 받으라고 권면을 받았다.

쿠바

2016년 쿠바에서 모인 실행위원회는 역사적 흔적을 남긴 쿠바 성명서를 통해 쿠바 교회의 지속적 연대와 지지를 제공했다. 이 6일간의 회의를 통해 실행위원들은 쿠바교회의 영감있는 사역을 직접 증거할 수 있었다. “쿠바교회는 우리에게 신앙이 연약한 사업이 아니라 탄력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쿠바교회는 매일 그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실현을 통해 힘겨운 시대의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의존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정부가 민족들과 종족들 사이에 장벽을 세워 분리를 시도할 때조차, 광의의 개혁교회는 여전히 관계와 협력을 구축했다.”

이 관계를 통해 쿠바개혁장로교회(Presbyterian Reformed Church in Cuba)는 에큐메니칼 세계에 강력한 리더들을 제공하고 쿠바 상황의 투쟁에서 선교를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성명서는 또한 쿠바가 콜롬비아 평화회담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 존경을 표현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사람이 쿠바가 훈련시킨 의료사역자들 덕분에 건강을 찾았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이 문서는 미국 회원교회들이 경제적 봉쇄/통상금지를 끝내려는 사역을 계속하도록 요청하고 모든 회원이 쿠바교회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기존 관계를 강화해달라고 권면했다.

글로벌 평화 이니셔티브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평화는 2016년에 콜롬비아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다. 평화협정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내부 갈등, 즉 FARC 게릴라들과 콜롬비아 정부 사이의 반세기 전쟁을 종식시켰다. 협정의 일부로서 FARC는 무장투쟁을 단념하고 정치적 협상절차에 합류할 것이다.

“협상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지만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조차 정의로운 평화로 가는 과정이 획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크리스 퍼거슨은 말했다. 퍼거슨은 WCRC 총무가 되기전 3년 동안 콜롬비아의 에큐메니칼 동반(Ecumenical Accompaniment in Colombia)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봉사했다. 콜롬비아 장로교회는 오랫동안 평화 과정 뿐만 아니라 FARC가 강조한 사회정의 문제를 지지하는 데 참여했다.

콜롬비아장로교회는 평화협상과정 뿐만 아니라 FARC가 강조한 사회정의문제를 지지하는 데 오랫동안 관여했다.

WCRC는 *오토페르밀레(Otto per Mille)*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통해 이 지속적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도우면서 평화협상절차에 동행하며 그 절차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콜롬비아장로교회는 그 지역회중들과 에큐메니칼 및 시민 협력자들과 함께 그 갈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서 평화협정 조건의 실행을 확인하기 위해 사역한다.

한반도

2016년 9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한 WCRC 대표단은 도발과 긴장 해소를 위한 선언에 대한 다급한 바람과 선언과 대화와 협상 재개의 필요,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려는 소원을 들었다.

이 방문은 WCRC와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더 넓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오랫동안 북한 기독교인들과 접촉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해온 헌신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세계 도처의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기관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바람을 재차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WCRC는 북한 방문 전후에 한국의 회원들과 에큐메니칼 협력자들과 연대하여 갈등해소와 모든 관련자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요청을 여러 번 발표했다

중동

WCRC는 중동에 관한 2015년 성명서를 필두로 중동 회원교회들을 통해 평화구축 노력에 더 적극 집중해 왔다. 개혁주의협력기금(Reformed Partnership Fund)은

미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의 특별기부금에 힘을 얻어 회원교단인 시리아와 레바논의 민족복음주의대회(National Evangelical Synod of Syria and Lebanon)와 협조하여 베카(Bekaa) 계곡에서 난민구제 노력을 지원했다.

크리스 퍼거슨은 WCC의 정의평화를 위한 순례준거집단(Pilgrimage for Justice and Peace Reference Group)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방문, 중동에 관한 다양한 신학성찰프로젝트, FMEEC가 지역 크리스천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한 두 번의 회의, 동일한 주제에 관한 NESSL

원탁회의, 그리고 중동교회협의회(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의 총회 등을 포함한 WCRC 중동사역에 깊이 참여해왔다.

인턴십 프로그램

지구촌 도처에서 온 젊은이들이 WCRC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들은 봉사기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더 큰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소속 지역교회에서 발휘할 리더십 역량을 키워주는 능력을 배양한다.

매년 고도로 자격을 갖춘 젊은이들이 WCRC 사무소의 12개월 인턴십에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WCRC 회원교단에 속한, 영어 소통이 가능한 30세 이하 개인에게 열려있다. 어느 수준에서건 소속 교단이나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해 일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역자, 신대원 졸업반 또는 기독교 전문인들이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대부분은

*개신교선교사역(Evangelisches Missionswerk)*이 조달하지만, 인턴과 후원교회도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요청한다. 최근 몇 년간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력자들도 인턴십을 후원하여 젊은 리더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인턴들은 의도적으로 WCRC의 모든 사역에 노출되지만 동시에 특정 사무실에 파견된다.

인턴 봉사자들은 여러모로 인정을 받고 성장한다. 2013년 인턴으로 봉사한 인도네시아의 아이코 수미찬(Aiko Sumichan)은 “저는 훌륭한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고 WCRC의 모든 요소를 경험하며 사역할 수 있는 다방면의 기회를 누렸다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015년 인턴으로 봉사한 남아프리카의 폰디스와 코보(Fundiswa Kobo)는 2012년 처음으로 글로벌신학연구소를 통해 WCRC에 연결되었다. “저는 그것[글로벌신학연구소]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통찰하게 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세계 곳곳에서 온 신학자들과 함께 하고 각자의 이야기와 투쟁을 나누고 신학함의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인턴 한국의 정도영은 “현대 교회가 세계와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선 에큐메니칼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고 말했다.

제 4 장 : 정의

WCRC는 성경과 신학에 근거한 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의 함축의미를 의식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 정립과 경제와 지구의 정의, 경제 정의, 빈곤퇴치, 성별 정의, 창조물 보전, 화해, 종교간 참여, 치유,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위한 사역을 포함한다. 우리 커뮤니티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자기이해는 WCRC와 회원교회와 지역협의회가 정의를 위한 예언적 외침에 헌신하는 것을 뒷받침한다(2011년 전략계획).

WCRC와 회원교회는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정의를 향상시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심오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WCRC는 이 은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위탁받은 특권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연합되고 소속되어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위한 관리를 함께 책임진다는 기본적인지만 심오한 원칙에 재헌신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WCRC는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정의의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다는 점에 기뻐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세상, 즉 평화롭고 정의롭고 창조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창조하는 데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정의와 협력 분과 사무소는 WCRC 지역협의회와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체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의 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한다.

아크라고백서

WCRC의 전신 중 하나인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의 24차 총회(2004년 가나 아크라 개최) 대의원들이 채택한 “경제와 지구의 정의를 위한 언약”(Accra Confession)는 2010년 WCRC 통합총회에서 재천명되었다. 고백서는 경제적, 생태적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 문제로서 개혁주의 가족의 대응을 요구한다는 신학적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아크라고백서는 경제적, 생태적 정의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문제만이 아니라고 선포한다. 그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필수적이며 교회 통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언약에 충실함은 각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현 경제적, 환경적 불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한다.

교회는 고난받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편이다. 성경의 예언자들과 복음서 내러티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의 전통을 따라, 아크라 고백서는 현 세계상황을 “무력한 자들과 고난받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다. 고백서는 교회들과 사회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현 글로벌 경제에 의해 과잉소비되고 과소평가된 창조 자체의 상처를 들으라고 요청한다.

2014년에 고백서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의와 협력 분과 사무소는 지역협의회들과 협조하여 케냐와 대만, 콜롬비아, 자마이카, 및 독일에서 일련의 회의들을 조직하였고,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글로벌 회의에서 막을 내렸다. 이 회의들은 아크라고백서의 메시지가 계속 울려 퍼지고 도전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임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일으키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긍정했다.

카리브해 및 북미지역 협의회(Caribbean and North American Area Council, CANAAC)가 2014년 3월 자마이카에서 개최한 회의는 서글프게도 “아크라고백서가 채택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회의 자체는 우리가 아크라고백서에서 고백하는 원리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의를 지향하는 협력의 세 영역을 제안했다. 인신매매, 빈곤, 그리고 불평등과 실업과 농업개혁이 해당된다.

2014년 6월, 스페인어 약자로 AIPRAL로 알려진, WCRC 라틴아메리카 지역단체의 회원들은 자체 회의에서 바란퀼라 선언(Barranquilla Declaration)을 초안했다. 선언문은 회원교회들이 아크라고백서를 교단 고백서에 포함시키고, 아크라고백서의 원리가 세계은행, 정부, 및 기타 국제기관과 같은 공적인 광장에 삽입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보호를 맨 앞에 두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대안들을 구축하는 공동체 노력에 참여하고 노력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 경제 시스템을 위해 개발하기 위해 북반구 교회들과 강력하게 연대하도록 요구한다.

바란퀼라 선언문은 “아크라고백서는 수 많은 이들을 배제하고 착취와 이기심의 특징을 가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부터 ‘인간’의 이상을 벗겨낸다.”고 설명했다. 고백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사상을 구출하는 대상 혹은 수단으로 인류를 드높인다.

2014년 9월 아프리카개혁교회커뮤니언(Africa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ACRC)의 대의원 24명 이상은 케냐 나이로비에 모였다. 아크라고백서의 증거를 비평하고 분별한 후 대의원들은 “선교기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 사역에서 교회를 발전시킬 신학적 원리와 행동들을 조금 확인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교회의 리더, 신학자, 목회자 및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적, 영적 체험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ACRC 실행위원회가 아크라고백서에 관한 컨퍼런스 편성과 장학금과

참여독려를 포함한 신학적 반추의 기회를 살피고 그 절차를 촉진하고, 인신매매와 아동학대의 희생자인 아프리카 젊은 남녀와의 연대를 서약하고 회원교회 모든 조직에 권력 집착을 비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2014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모인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Northeast Asia Area Council (NEAAC))에 대만과 한국, 일본, 및 홍콩에서 온 대표들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임금착취와 인종차별과 인권억압을 포함한 많은 문제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협의회는 또한 이렇게 언급했다. “이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다종교사회 속에서 소수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크라고백서가 제기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타종교와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사람, 신념은 현 경제금융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모두 시민으로서 약자와 빈민과 특히 청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내재된 불의를 변화시킬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협의회는 세상의 수많은 불의한 영역들을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대한 소원을 표현했다.

2014년 10월에 열린 WCRC 유럽의 회의는 그 지역의 중대한 정의 문제로 특히 망명과 이주에 초점을 맞추고 강제이주의 원인과 난민 유입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은 난민을 초기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유럽 국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더 영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일하는 나라인 헝가리와 독일에서 온 강연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사들의 말을 들었다. 그 회의에서 중요한 또다른 목소리는 중동에서 나왔다. “돈을 보내는 것은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은 교회가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일이다. 국경이 폐쇄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2014년 11월 글로벌 회의는 모든 지역에 대해 경청하고 WCRC 실행위원회가 일련의 헌신을 채택하도록 건의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새로운 위기들이 생겨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므로 아크라고백의 도전에 열려 있기
- 해방과 모든 형태의 지배에 저항
- 협력자 및 사회운동과 협력
- 주변부에 관한 소리와 침묵을 강요당한 이들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깊이 듣기

행동 영역들도 역시 추천되었다. 비판적 성경읽기와 회중이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창의적 자료, 카스트, 기후변동, 젠더 및 성적 취향, 인신매매, 이민과 이주, 신국제금융경제구조, 인종차별, 총족 신학(theology of enough).

이후 2년간 이 아크라 회의들의 후속조치로 “아크라+10”이란 기치 아래 두 지역 연석회의가 2회 열렸다. 참여가 확장되고 초점은 좁혀졌다. 각 회의는 아크라고백을 젠더정의에서 접근했다. 이 작업은 젠더정의와 경제정의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15년 11월 ACRC와 NEAAC 참가자들이 젠더 관점의 렌즈를 통해 반추하고 교회가 폭력, 불의, 및 인간 존재와 본성의 격하에 관해 직면하는 도전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통해 반추하기 위해 “젠더 관점으로 시대의 징조를 읽기”라는 주제 하에 함께 모였다.

대의원들은 분별과정과 하나님 말씀 연구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문제들과 부름에 헌신하였고 모든 회원교회도 같은 일을 하도록 호소했다.

- 사역자들이 생명공정적 성경해석을 하도록 훈련,재훈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 모든 사람의 전면적 참여를 방해하는 정책과 헌법 조항의 수정을 위해 일한다.
- 지역교회에서 관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할 성경공부 모델을 개발하고, 회원교회와 지역과 국제커뮤니언 사이의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대변하도록 보장한다.
- 모든 회원교회가 정의 창구를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두 번째 두 지역 연석회의가 2016년 1월 쿠바에서 있었다. 미주, AIPRL과 CANAAC, 참가자들도 역시 “젠더 관점으로 시대의 징조 읽기”란 주제 하에 모였다.

회의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우리의 공적,정치적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의 선교(사명)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불의한 시스템을 비난하고, 정의와 평등을 위해 일하고, 새로운 관계 모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평화를 위해 사람들과 동거하라고 부름받았다. 사람들과의 그러한 동행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대중미디어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상품화하라고 부추기는 이미지를 계속 배출하는 모습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선교에 헌신하고 지방, 국가, 지역별 행동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헌신하는 교회 리더십을 요구한다.”

경제 정의

사용파울로 선언이 대화를 개시하다

WCRC, 세계기독교협의회(WCC), 그리고 세계선교협의회(CWM)는 2010년 통합총회가 경제적 불의 문제를 글로벌 금융 구조/시스템 문제를 통해 다루라고 지시한 것을 받아들여 2012년 “사용파울로 성명 : 생명경제를 위한 국제금융변화” 초안을 작성했다. 이 문서는 “정직, 사회정의, 인간존엄, 상호책임 및 생태계 유지 등 공통가치의 틀에 근거한 윤리적이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제금융체제”를 가져올 범세계적 경제 개혁을 촉구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큐메니칼 단체들은 그 문서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및 가나 정부대표와의 회의에 관여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성명서는 또한 2013년에 신국제금융경제건설(NIFEA)에 관한 에큐메니칼 패널을 낳았다. WCRC, WCC, 및 CWM과 루터교세계연맹(LWF)이 세운 경제전문가 그룹도 윤리적이고 공정하고 유지가능한 경제금융시스템을 촉진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패널이 확립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 경제적 실력을 갖추기 위해 통치, 경제, 운영에 관한 에큐메니칼 학교를 세운다.
2. 대안적 은행업무에 관한 종교간 컨퍼런스를 소집한다.
3. 정부의 지출과 수입을 감시하고 정부가 공공 이익을 운영하지 않고 부패와 특권과 “지대추구” 혜택을 밀어주거나 허용할 때, 그리고 시민의 감독을 방해하고 가난한 자보다 부자, 한 사회 집단보다 다른 집단, 여성보다 남성의 편을 들 때 개혁을 요구한다.
4. 포괄적 부채해소기구의 채택을 장려하는 기존 국제시민사회 노력에 참여하거나 그 노력을 강화한다.
5. 국제금융구조의 개혁 상황을 조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글로벌 금융경제통치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실천과 제도의 설립 또는 변화를 향한 필수 개혁을 밝히고 요구하기 위한 컨퍼런스 준비에 기여한다. 그리고
6. 정부와 국제금융경제기관들이 경제성장 대신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상황 전체를 성장지수로 채택하고 기존 대안들을 평가하는 연구조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캠페인 행사를 수행한다.

이 우선순위를 성취하는 작업에는 통치, 경제, 경영(GEM) 학교가 포함된다. 이 열흘간의 학습기회를 통해 교회지도자, 신진 지도자, 및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더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경제를 도전하고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 2-3년 동안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마련한다. 최초의 GEM 학교는 2016년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두 번째 학교는 2017년 8-9월 잠비아 루사카에서 열릴 것이다.

사회 정의

인신매매는 세계적으로 어림잡아 2100만 명을 노예로 만든다. 이 중 1420만명(68%)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450만명(22%)이 성적 착취를 당하며, 220만 명(10%)이 국가가 강요한 수용시설에서 강제노동착취를 당한다.³ 인신매매를 당한 이 사람 중 아동이 많다.

인신매매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인 교역이다. 노동과 성(性)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을 상품화하고 성별, 인종, 신분,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하여 사람에게 불평등한 가치를 매기는 광범위한 경제시스템의 일부인 인신매매는 여성, 남성, 그리고 아동의 몸을 상품으로 이용한다. 그 근본 원인은 빈곤을 창출하고 영구화하며 인간에 내재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에 있다.

WCRC 정의 네트워크(Justice Network)는 이 문제를 다룰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쿠바에서 모였다. 참가자들은 개혁주의 가족이 아크라고백서에서 죄라고 고백했던 더 큰 시스템의 경제 불의를 드러내는 불의를 인신매매에서 보았다. 인신매매는 우리 경제의 원리가 왜곡되어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사람이 이윤 때문에 희생되고 인간의 내재적 존엄성이 거부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 고통스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프로젝트와 주제논문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그룹이 2014년 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모였다.

이 작업의 결실로 개발된 “당신을 위해 깨어짐(Broken for You)”은 2015년 사순절 기간 사용된 자료다. 이 목상자료는 매일 독서물과 인신매매와 싸우는 실천방안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예전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당신을 위해 깨어짐” 캠페인은 인신매매라는 악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주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영성을 날으려고 노력할거라고 여겨졌다. 이 문서는 영어로만 준비되어 있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많은 WCRC 회원교회들이 사용했다.

인신매매 작업그룹은 또한 2015년 7월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모였다. 거기서 그룹은 이주민과 멕시코-미국 국경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을 통해 회원들은 전방위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작업그룹은 인신매매, 이민, 국경사역에 관여하는 기관들과 만났다. 이 기관에는 *신앙의 단계들(Pasos de Fe)*, *여성의 집(Casa Amiga)*, *수태고지의 집(Annunciation House)*, *생명 프로젝트(Project Vida)*, *필수인권 행동(Derechos Humanos Integrales en Accion)* 그리고 *희망 센터(Center for Hope)*가 포함되어 있다. 작업그룹은 또한 멕시코 후아레스를 방문하여 젠더폭력, 여성살해, 인신매매를 종식시키기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만났다. 작업그룹은

³ 통계출처. <http://www.humanrightsfirst.org/resource/human-trafficking-numbers>.

사람을 인간적 통전성을 상실할 만큼 취약하게 만들어 “상품”화하는 다차원적 원인들, 즉 여러 원인 중 예를 들자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기후변동, 전쟁 등을 고려하면서 인신매매 관련 문제들을 전인적 접근으로 다루는 일을 계속하려고 계획한다.

난민

2014년 10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WCRC 유럽의 망명이주 컨퍼런스(Conference on Asylum and Migration)는 유럽으로 계속 유입되는 난민 수의 결정적인 문제와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정부 정책과 문화적 무관심에서 생겨난 문자적, 비유적인 높은 담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교회는 이 사람들에게 헌신하라고 부름받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비록 유럽 전역의 많은 교회가 난민과 더불어 일하고 있지만, 정부 장벽을 깨뜨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주택과 직장과 생활 기술을 얻도록 도우려면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

2016년 후반, WCRC 유럽은 유례없는 규모의 난민이 유럽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이주난민대책위원회(Task Force on Migration and Refugees)를 신설했다. 대책위원회는 이주에 대한 신학적 반추로 시작하여 크리스천-무슬림 관계에 관한 대화에 참여하고, 중동교회들과 협력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모범적 실천들을 공유하고, 이 모든 것을 구체적인 연대 행동을 통해 실천했다.

대책위원회는 헝가리와 그리스에서 모였다. 회원교회들의 반응을 체험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또한 대책위원회 참여자는 물론이고 난민을 환영하고 새로운 나라에 재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다른 유럽 회원들의 이야기도 경청했다. 어떤 교회들은 또한 난민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법률과 규제를 바꾸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 대책위원회가 WCRC유럽 회원들에게 보낸 성명서 초안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난민 신청자들은 교회에 그저 윤리적 혹은 정치적 도전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신학적 정체성과 선교(사명)에 도전한다. 성경적 증거와 그 소명과 사명(선교)을 신실하게 따르는 개혁교회는 난민의 생명과 존엄과 복지에 헌신하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젠더 정의

국제연합 파견 대표단

2014년 3월 도라 아르체 발렌틴(Dora Arce Valentin) WCRC 정의와 협력 분과 실행간사가 58차 국제연합 여성지위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서 젠더평등을 옹호한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 대표단과 합류했다. 이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경제사회협의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기능 위원회이며 오로지 젠더 평등과 여성발전에만 헌신된 주요 글로벌 정책입안 단체다. WCRC는 대표단에 참여함으로써 젠더 평등에 헌신하고 젠더폭력에 반대하는 개혁주의 가족으로 드러났다.

세계 곳곳에서 젠더정의에 관심을 가진 그룹들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58차 위원회의 우선주제는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한 밀레니엄 개발목표 실행의 도전과 성취”였다. 우선주제에 반응하여 에큐메니칼 여성(Ecumenical Women)은 4가지 주제를 위원회 결고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빈곤과 기아, 질 좋은 교육 접근 그리고 고용과 의사결정, 성기능 및 생식기능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충분한 건강관리,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대응한 사회규범의 변혁적 변경이다.

대(對)여성 폭력 종식

2013년 11월 세계 곳곳의 교회들은 성폭력 또는 젠더기반 폭력과 그 예방에 관한 대화, 가르침, 기도, 그리고 행동을 촉진하는 “외치는 일요일”(Speak Out Sunday)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다. 그 날은 “우리는 외치리”(We Will Speak Out)란 기독교기반의 NGO와 WCRC를 포함한 교회기관들의 글로벌 연합기구가 조직한 것이다. “외치는 일요일”은 11월 25일(UN 국제 대여성폭력근절의날)부터 12월 10일(국제인권의 날)까지를 “젠더폭력 반대 행동 16일”(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Violence)으로 표시하고 지켰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2013년 6월 발표한 보고서는 육체적 혹은 성적 폭력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 중 3분의 1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 건강 문제임을 부각시켰다. 이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람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글로벌 데이터 연구로서 가까운 배우자의 폭력이 여성에 대한 가장 흔한 유형의 폭력으로 세계 전체 여성의 30%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우리는 외치리”는 성폭력 종식 노력을 활용함으로써 교회들이 성폭력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강력하고 긍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통일된 목소리로 입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한다.

공개적 홍보는 루터교세계연맹, 미션21, 세계교회협의회, 성공회커뮤니언, 젊은여성기독교협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이슬람 구제(Islamic Relief)와 같은 에큐메니칼, 종교간 협력자들과 더불어 성폭행과 젠더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목요일엔 까만 옷”(Thursdays in Black) 캠페인과 연례적인 “젠더기반 폭력 반대 행동 16일”(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Based Violence) 참여를 포함한다. 캠페인은 매년

국제대(對)여성폭력근절의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인 11월 25일부터 국제인권의날인12월 10일까지 열린다

여성을 위한 장학금

WCRC는 남반구 여성을 위한 신학교육장학기금(Theological Education Scholarship Fund for Women in the South)을 통해 여성들을 후원한다. 2001년에 설립된 장학기금은 글로벌 사우스의 광범위한 개혁교회 네트워크에서 온 여성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실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기금은 장학금 수혜자의 본국이나 지역에 소재한 신학교나 대학에서 이뤄지는 첫 학위 또는 과정의 비용을 제공한다. 이 기금에서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카메룬,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기아나, 인도, 케냐, 모잠비크, 미얀마, 나이지리아, 콩고공화국, 르완다, 남아프리카, 토고, 투발루, 우간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출신 여성 36명 이상이 장학금을 받았고 안수사역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여성안수

2015년 실행위원회는 여성안수 문제를 연구할 작업그룹의 신설을 승인했다. 이 작업그룹은 다음 목적을 가지고 첫 모임을 가졌다.

1. 통합총회의 지시를 충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진전 단계들에 관한 전략화하고 여성안수가 커뮤니티의 특성과 젠더정의 투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2. (남녀의) 안수 문제를 연구하여 지독한 불의와 차별이 있는 세계에서 교회들의 예언적 증거, 선교(사명) 및 기여를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안수사역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3. 회원교회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여 자기 삶에 대한 다양한 의미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고 상호간 그리고 WCRC 실행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도록 돕는 자료 제작.
4. 대책위원회가 실행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시를 완수하기 위해 차기 실행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건의안에 관한 제안서 제출하기.

여성안수 작업그룹은 두 번 대면모임을 가졌다. 첫 모임은 2015년 10월 독일 하노버에서 있었고, 두 번째 모임은 2016년 1월 쿠바 아바나에서 있었다. 이 두 번의 모임을 통해 작업그룹은 당시 “여성안수에 관한 믿음의 선언을 향하여”를 작성했고, 그 후 2016년 실행위원회에서 이것을 발표했다. 그러자 실행위원회는 “여성안수에 대한 믿음의 선언”을

2017년 총회에 상정하여 숙고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이 선언문을 보려면 총회 워크북 참조).

오이코트리 운동

CWM과 WCC와 더불어 오이코트리 운동(Oikotree Movement)을 후원하는 에큐메니칼 단체 중 하나인 WCRC는 이 운동에 생기를 불어넣는 비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해왔다. 이는 아크라고백서(WARC 총회, 2004)의 많은 영향 중 하나다⁴.

최근에 두 번의 글로벌 포럼이 2010년 독일 아르놀트샤인(Arnoldsheim)과 2013년 남아프리카 요한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다. 오이코트리도 역시 국제 에큐메니칼 평화 대회(International Ecumenical Peace Convocation, 자마이카 킹스턴, 2011)의 절차에 예언적 기여를 했으며, WCC-CWME(세계선교와 전도 위원회)가 2012년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한 새로운 WCC “선교와 전도에 대한 확언”을 개발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여기서 이루어진 중요한 헌신 중 하나인 신학연구와 훈련 프로그램 참여는 오이코트리 운동이 현재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되었다.

요한네스버그에서 이뤄진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촉진하기 위해 다섯 개의 작업그룹을 조직한 것이다. 이 작업그룹은 변혁적 신학(Transformative Theology), 변혁적 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 연합 투쟁(Joint Struggle),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 그리고 네트워킹과 소통(Networking and Communication)이다. 2016년에 추가된 두 개의 작업그룹은 연구와 분석(Research and Analysis) 그리고 생활개선 농업(Life-Enhancing Agriculture)이다. 이 그룹들을 통해서 오이코트리 운동(Oikotree Movement)의 지속 사역이 많이 성취되었다.

작업그룹 활동

연합 투쟁(Joint Struggle). 이 그룹은 인도에서는 종합적지방취약지구개발(Integrated Rural Development of Weaker Sections) 운동과, 한국에서는 POSCO(이전의 포항제철로서 한국 포항에 본부를 둔 다국적 철강회사) 문제에 관하여 오이코스신학운동(Oikos Theology Movement)과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과 한국교회협의회(NCC)와 연대행동하는 사역에 적극 참여해왔다. 인도 오리사에서 집요한 저항에 부딪친 POSCO는 마침내

⁴ 2006년 5월 CWM과 WARC(2010년에 WCRC에 속하게 된 기관 중 하나)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조직한 포럼은 *아크라고백 실천하기: 우리의 영성과 선교를 위한 함축의미(Living out the Accra Confession: Implications for our Spirituality and Mission)*였다. 포럼은 “아크라고백 실천하기”라는 역사적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것이 오이코트리 운동의 이정표가 되었다.

오리사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그룹은 현재 오이코트리 운동이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평화과정에 동역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 중에 있다.

변혁적 신학(Transformative Theology). 이 그룹은 토지문제의 신학적 반추과정을 통해 *땅에게 귀기울이라! 생명을 위한 부르짖음에 반응하라(Listen to the Land! Responding to Cries for Life, WCRC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음)*를 완성 출판할 수있었다.

변혁적 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 이 그룹은 2015년 2월 쿠바 만타사스(Matanzas)에 소재한 에큐메니칼 신학대학원(Ecumen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변혁적 교육에 관한 워크샵을 조직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당면한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는 환경적 혼란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에서 현재의 이분법적 인식론을 대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더욱 유기적,관계적,전인적인 새로운 비전이 없다면 우리가 직면한 생태계 재난은 제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오이코트리 운동은 워크샵 논문 모음집을 *생활개선 공동학습(Life-Enhancing Learning Together, WCRC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음)*이란 제목으로 출판했다.

연구와 분석(Research and Analysis). 이 작업그룹은 반추와 분석이 필요한 문제들을 확인하는 자원그룹(resource group)으로 기능하며, 기후 정의, 생태계, 경제 및 신학에 관한 현재 조사결과를 강조하며, 새로운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도출 문제들을 제안하고 대안에 관한 현재 정보를 확인한다

생활개선 농업. 그 운동은 이 그룹을 통해 우리가 전체 *오이코스(oikos)*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적 생활방식으로서 또한 생태적 양심과 정의를 지닌 정의로운 인간 사회를 위한 대안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추진력으로서 생활개선 농업에 헌신할 것이다.

장로교국제연합사역부

장로교국제연합사역부(Presbyterian Ministry at the United Nations)는 국제연합에서 사역하는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를 대표하면서 국제연합에 문제를 제기하는 WCRC의 전달자 역할도 하고 있다. 스태프멤버들은 회원들이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로서 그 글로벌 공동체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영감을 고취하고 훈련하고 연결시키는 도움을 제공한다.

사역부는 정의와 평화를 옹호하는 폭넓은 목표를 성취하는 일을 하면서 국제연합에 제기되는 현안들을 다루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역부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계 곳곳의 정치적,종교적,인도주의적 지도자들이 모이는 UN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연례 컨퍼런스 참여를 조직화한다. 동시에 이 사역부는 그 단체에 평화를 호소하는 콜롬비아장로교회 대표단과 수단의 교회 리더들을 영접하는 일과 같은 구체적인 사역도 맡는다.

장로교사역팀은 사역 전반에 걸쳐 UN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증거를 돕는다. 이 사역팀을 통해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반응한다.

제 5 장 : 신학

WCRC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신학교와 신학자, 리더 및 잠재적 리더들을 함께 모아 WCRC 안팎에서 개혁신학의 신선한 이해와 개혁주의 정체성의 새로운 표현을 발견하고 신학센터와 개인들의 자원에 힘입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는 것을 구상한다. WCRC는 그 가치와 신념을 융합시켜 교회라는 덩어리로 만들고 현재 실상을 반영하는 상황적 신학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2011년 전략 계획)

우리는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보는 방식을 구별해주는 특징들을 천명하고 구현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심오한 충성이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의 전개에 중심적이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계속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정체성의 근본이다(디모데후서 3:16-17). 또한, 우리 성경관을 요약하는 신조적, 고백적 문서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로서, 우리는 늘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성령에 의한 지속적인 개혁에 우리 자신의 전통과 야심을 굴복시킨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만 한다).

언약신학이 제공하는 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펼쳐지는 가운데 통전적 연결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구원계획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의 개혁주의 정체성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커뮤니티로 점점 더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는 헌신을 자아낸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품은 우리는 부득불 이 세상에서 불의와 깨어짐을 당하는 이들과의 영적, 사회적 연대를 표현할 수 밖에 없다(아모스 5:24, 미가 6:8). 하나님의 자비로운 주권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정하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역동적이 된다(마태복음 28:18-20). 그것은 우리더러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삶의 전 영역에서 지성과 기술을 개발하라고 권면한다(마태복음 5:16).

글로벌신학연구소

WCRC는 전세계적으로 50명의 신학생이 역시 세계 전역에서 온 교사들과 더불어 교차상황적, 에큐메니칼 신학을 배우고 연구함으로써 신학적 과제를 지엽적, 지역적, 세계적 상황에 위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집약적인 단기 연구 프로그램인 글로벌신학연구소(Global Institute of Theology, GIT)를 운영한다.

GIT의 구체적 목적은 학생과 교수가 함께 작업하면서 배움과 신앙의 공동체를 구축하고, 현대의 성경적, 신학적 방법론을 접하고, 글로벌 개혁주의 가족의 기독교 증거에 대한 다양한 상황적 관점들을 소개하고, 개혁주의 공동체 안에서 에큐메니칼한 신세대 교회 리더들의 형성에 기여하는 나눔과 성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0년에 미국 미시건주 그랜래피즈 통합총회와 연계하여 맥코믹신학대학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일리노이주 시카고)과 칼빈신학대학원(Calvin Theological Seminary, 그랜래피즈)의 협조와 학문적 후원 하에 GIT가 개최되었다. 60명의 학생이 여기에 참여했다. 통합총회의 주제인 “평화의 띠로 묶여 성령 안에서 하나됨”(에베소서 4:3)이 그 주제였다. WARC와 REC가 통합되어 신설된 단체의 특징이 커뮤니언인지라, GIT의 과정은 연합(communion)과 선교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미 시작된 언약의 과정은 경제 불의와 환경 파괴에 대한 교회들의 반응을 반추하는 학생들을 통해 지속되었다. 그들은 고백간, 문화간, 종교간 차원에서 현대 성경적, 신학적 방법론을 탐구하고 총회주제와의 관련성을 분별하도록 도전을 받았다.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의 선교학들과 개혁주의 정체성과 선교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었다.

강의와 세미나, 노출, 상황 체험, 이야기 나눔, 그리고 미국교회 생활에 참여를 통해 GIT는 통합총회의 주제와 관련 주제들을 연구했다. 학생들은 또한 성경공부와 예배, 공개회의와 연구회의 및 기타 행사 등을 통해 통합총회의 모든 행사에 다 참여했다.

2012년에 53명의 신학자들이 3주간 집중연구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두타와카나 기독교대학교(Duta Wacana Christian University)에서 모였다. 참석자들이 받은 프로그램에는 교실 학습 뿐만 아니라 그 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공동체 멤버들을 만나는 현장 실습도 포함되었다. 현장실습은 이틀간 무슬림 *페산트렌(pesantren, 기숙학교)*, 프람바난(Prambanan) 사원 근처의 불교 *멘두트(센터)*이나 시골의 기독교회 공동체 중 하나를 선택해 방문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선택 사항 중에는 또한 지진과 화산폭발로 타격을 입은 지역에서 재난후 회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함되었다. 이 직접적인 만남들은 학생들의 신학과 세계관을 도전하고, 변화시키고, 풍요하게 해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WCRC의 4차 GIT는 2014년 7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소재한 *라틴아메리카 성경대학교(Universidad Bíblica Latinoamericana)* 캠퍼스에서 “변화시키는 선교와 공동체와 교회”라는 주제로 모였다. 학생들은 선교와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상황적 성경읽기, 라틴아메리카의 기독교 선교와 개혁주의 정체성, 그리고 활력있는 교회 탐색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과정도 주어졌다. 몰입 체험에는 현지교회 주일예배 참석, 코스타리카의 유적지 여행, 그리고 교회들의 아웃리치 프로젝트 방문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가장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이었다. “학생들은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희망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의 이야기들을 가져와 나눕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글로벌 공동체에 소속됩니다.”라고 WCRC 신학분과 실행간사이자 GIT 간사인 두웨 비써(Douwe Visser)는 말했다.

2016년에 GIT를 개최하지 않았기에 금년에 총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GIT를 체험하면서 글로벌 에큐메니칼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기록적인 지원자 수에서 50 명의 학생이 올해 GIT 에 다시 선발되었다. 이들은 3주 동안 부퍼탈/베텔 키르흐리헤 훅호술레(*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에서 3주 동안 모인 후 총회 기간 라이프치히로 이동할 것이다. GIT는 총회 주제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갱신하고 변화시키소서”와 함께 고백서들과 고백교회들에 대해 반추할 것이다. 총회가 특별히 바르멘 시와 가까운 곳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1934년 바르멘에선, 독일교회를 장악한 나치의 임박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역에서 연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님이라는 대담한 고백서를 작성했다. 이 바르멘 고백서(Barmen Confession)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증하는 상징이 되었다. 네 개의 주 과목은 개혁신학의 다른 측면과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선교적 책임들에 초점을 주게 될 것이다. 8개의 선택 과정은 (학생은 이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함) 그리스도인들이 WCRC가 추구하는 일치와 연합에 대한 도전을 다루면서 겪는 삶의 체험을 깊이 연구하게 될 것이다.

대화들

다른 신자공동체들 가운데, 또한 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신학적 대화들은 우리 선교에 정보를 더해주고 우리 사역 관계를 풍성하게 한다. 우리는 교단적, 신학적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우리 신앙과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협력사역과 글로벌 문제에 관한 의견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다. 지속적인 대화들은 때로는 도전적이고 때로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항상 결실을 맺는다. 참여자들이 한 분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일치하기 때문이다. 대화의 각 시리즈는 신앙 전통들 간의 기존 접촉점들을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

WCRC와 로마가톨릭교회 사이의 국제적 대화의 네 번째 단계는 정의와 성화, 말씀과 성례와 정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기독교 연합체를 역사적으로 분열시킨 이 신학적 문제들에 관해 집약된 대화를 나눈 5년의 절정으로서 *정의와 성례성: 정의의 대리자인 기독교 공동체 (Justification and Sacramentality: The Christian Community as an Agent of Justice)*라는

문서가 탄생했다. 보고서는 여러 중요한 신학적 표준에 관해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영역들을 부각시켰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는 합의. 그러므로 “칭의는 덕스러운 행동의 열매를 가능하게 하며 그것이 이르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는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를 이용하여 일으키신다는 합의. 그리고 신학적 칭의론과 칭의의 실재가 “기독교 공동체를 정의를 위해 행동하도록 압박한다”는 합의. 현재 실행위원회는 이 문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루터교세계연맹

루터교세계연맹(World Lutheran Federation, LWF)과의 두 번째(그리고 최신의) 공식 대화는 공통된 신학과, 이미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 수준 사역협력의 확장 가능성에 호소했다. 대화가 2010년에 마감되었지만, 최종보고서인 *커뮤니언: 교회됨(Communion: On Being Church)*을 마감하는 데 수 년이 소요되었다. 2014년에 양측 실행위원회가 이 문서를 (WCRC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음) 채택했다. 보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많은 부분과 한 때 우리를 분열시킨 것들이 복음을 위해 제쳐졌다는 사실을 축하했다. 공통의 역사, 공통의 신조와 고백서들, 그리고 공통의 선교 추구는, 특히 지역 수준에서, 더 긴밀한 일치를 위한 길을 계속 닦을 것이다.

성공회 커뮤니언

2015년 11월에 성공회 커뮤니언(Anglican Communion)과 개혁주의 커뮤니언이 30년도 더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대화를 가졌다. 연합(communion)이란 주제에 초점을 맞춘 대화의 의도는 “격변하는 시대에 더 나은 상호이해, 더 나은 자기이해, 그리고 불일치를 더 잘 해결하는 법과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 향상”을 낳는 것이라고 프린스턴신학대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의 명예총장이자 스코틀랜드교회(Church of Scotland) 증경총회장인 이아인 토랜스(Iain Torrance)가 대화 참여자로서 말했다.

첫 회의의 주제는 “커뮤니언의 본질”이었고 신약의 *코이노니아(koinonia)*란 단어에 의존했다. 그 단어가 현재 교회들간의 상호관계의 본질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여러 참가자들의 한 발제에서 나타났듯이, WCC 최근 문서인 *교회: 공통된 비전을 향하여(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에 나온 커뮤니언에 대한 관점들이 대화의 한 역할을 감당했다. 첫 회의에서 나타난 세 개의 하부주제들, 즉 커뮤니언의 특징, 커뮤니언과 일치와 이탈, 그리고 커뮤니언과 정치와 권위가 향후 대화의 초점이 되었다.

2016년 9월 영국 캠브리지에서 개최된 두 번째 회의는 커뮤니언의 본질, 그것의 특성과 집중도, 신학적, 부차적(권위적으로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은) 문제들에 관한 오해들, 두

교회 전통의 지속성 그리고 그러한 지속성이 교회 바깥 사회와 대조되게 예전화된 방식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했다. 이 위원회는 2017년에 다시 모일 것이다.

오순절파

오순절교회 대표들과의 대화는 “세상의 필요를 섬기기: 선교와 성령론”이란 주제로 세 회기를 가졌다. 회기마다 각 전통에서 논문을 발제하고 나서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하고 상술하는 논의를 가졌다. 이 결실있는 도전적 논의들은 팀들이 성령의 선교 사역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평가하는 데 기여했다.

“개혁교회와 오순절교회 사람들은 세계 도처의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교류가 가진 특색은 종종 한 쪽 사람들이 다른 쪽에 대해 잘못된 전제나 고정관념을 지닌다는 점이다. 대화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각 전통의 깊이를 캐내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대화의 개혁교회측 공동의장인 칼라 앤 콜(Karla Ann Koll)이 말했다.

세계적인 기독교 커뮤니티들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개혁주의 세계

WCRC의 신학저널인 *개혁주의 세계(Reformed World)*는 세계 도처의 신학자들이 저술한 학구적 논문들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촉진한다. 1년에 3회 출발되는 이 저널은 모든 회원교회와 여러 회원 신학대학원들과 기독교 대학들, 회원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자들과 유료구독자들에게 발송된다. 현재 67년을 맞은 *개혁주의 세계*는 WCRC 웹사이트에서도 디지털 버전으로 구할 수 있다. 추가 발행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무료 접속이 가능한 커다란 기록보관소를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저널의 글들이 전통적 깊이와 학문성이 있긴 하지만, 이 출판물은 또한 세트리 니요미(Setri Nyomi) 총무가 14년간 WCRC에 봉사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에게 명예를 돌리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젊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실으려고 일치 단결했다. 일차적으론 영어로 출판되긴 하지만, 많은 기고자들이 영어가 아닌 제일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다양성을 *개혁주의 세계*의 지면에 반영하기도 한다.

글로벌 개혁주의 신학자 네트워크

WCRC의 글로벌 개혁주의 신학자 네트워크는 정기적으로 모이고 교회들의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연합을

실천하며 정의에 헌신하기 위한 글로벌 개혁주의신학의 개발에 참여해 왔다. 신학자 네트워크의 회원들은 커뮤니티의 모든 지역에서 뽑힌, 도전적, 상황적 방식으로 신학적 반추에 참여해 온 남녀들이며 선교학적 전문성을 구비한 이들도 있다. 개혁신학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글로벌한 성찰을 위해 모이는 그들은 WCRC의 “싱크탱크”로 간주된다. 이 그룹의 작업 결과는 WCRC 논문과 연구문서에서, 특히 *개혁주의 세계(Reformed World)*에서 볼 수 있다. 교회들이 각 상황에서 선교 소명과 커뮤니티와 정의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회원교회들을 위한 분명한 지침에 따라 이 그룹은 일한다.

롬바르 상

WCRC는 스위스 제네바의 롬바르 오디에 및 씨에(Lombard, Odier & Cie) 은행과 제휴하여, 1948년부터 1970년까지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WCRC 전신 기관 중 하나) 회계로 섬긴, 고(故) 조르쥬 롬바르(Georges Lombard)를 기념하는 신학 논문에 대해 상을 수여한다. 은행과 롬바르 가문은 세계개혁교회연맹 회원교회의 탁월한 학생과 젊은 목회자들을 장려하고 후원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다.

2-3년마다 한 번씩 수여되는 이 상의 목적은 개혁주의사상의 고전적 전통에서 현대적 문제를 다루는 신학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세계의 실천적 문제들과 대화하면서 개혁주의 증거의 중심 요소인 신앙과 신학의 요소들을 융합하는 논문을 제출하도록 신학생들을 초대한다.

2013 년에 나이지리아 그리스도 개혁교회(Reformed Church of Christ in Nigeria) 회원인 빅토르 아우두(Victor Audu)와 *네덜란드개신교회(Protestantste Kerk in Nederland)* 회원인 마리아 엘리사벳 보오윈덴(Maria Elisabeth Voorwinden)이 논문을 써서 상으로 현금과 함께 2014년 글로벌신학연구소 장학금을 받았다.

올해에도 이 경연이 개최되는데, 총회와 동시에 개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일등 수상자가 총회에 참석하기 바란다. 3등까지 *개혁주의 세계(Reformed World)*에 논문이 출판될 것이다.

제 6 장 : 에큐메니칼 참여

WCRC는 대제사장적 기도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간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더 큰 가족에 소속되어 다른 이들과 동역하라는 부름을 받고 다른 에큐메니칼 단체들과 긴밀하게 동역하고 다른 세계 커뮤니티들과의 위원회와 대화에 헌신함으로써 이 핵심방향을 표현한다.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개혁주의 가족과 전체 교회 모두를 위한 것이다. 개혁주의는 에큐메니칼 특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WCRC는 계속해서 기독교 일치와 에큐메니칼 선교를 촉진하는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2011 전략계획)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교회로서 공통된 유산을 축하해야 할 부분이 많다. 2010년 이후 WCRC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크리스천 연합체들과 더불어 풍성한 대화에 참여해 왔다. 오백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목적은 교회분열이 아니라 교회내부개혁이었다. 그후 교회가 분열로 오염되어왔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모든 분열이 다 신학적 본질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분명코 하나님은 이것에 마음이 상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열이 종식되리라는 소망을 품을 만한 근거도 있다. 풍성하고 결실있는 대화와 협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커뮤니티들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도록 일해야 한다.

로마가톨릭교회

최근에 WCRC는 로마가톨릭교회와 관계를 강화할 많은 기회를 가졌다. 그 정점은 2016년 6월 프란시스 교황을 포함한 바티칸 당국자들과의 회담일 것이다. 많은 회원교회들이 고유한 상황 속에서 가톨릭교회와 함께 직면하는 많은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을 통해 이해와 협력이 커진 것을 축하하고 더 긴밀하게 동역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갱신되었다.

크리스 퍼거슨 총무는 프란시스 교황에게 전달되는 공개 연설에서 이 회담이 “기쁨과 긴박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회개와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인 일치에 더 가까워지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는 공식 대화를 통해 이뤄진 진전과 칭의교리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아래 참조)에 연대 합의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퍼거슨은 또한 긴박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위협과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는 *아크라고백서*(Accra Confession)와 “우리의 공통된 고향”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시스

교황의 회람서한인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인용하여 정의에 대한 WCRC의 헌신과 로마가톨릭교회의 헌신 사이에 평행선을 그렸다.

프란시스 교황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혁교인과 가톨릭교도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증거하는 데 동역할 수 있는 영역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에워싼 것처럼 보이는 혼돈과 무관심에 대한 참된 처방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리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 대화와 더불어 전도와 섬김의 공동사명을 촉진할 수 있는 에큐메니즘이 긴급한 필요합니다."

또한, WCRC 대표단은 바티칸 방문 여행 중 그리스도교일치를위한교황청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Christian Unity, PCPCU)를 만났다. WCRC와 PCPCU는 2011년부터 일련의 국제적인 개혁교회-가톨릭 대화를 유치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학자들을 불러모아 여러 주제 중 칭의와 유카리스트, 정의에 관해 논의했다. 그 결실로 나온 보고서인 *칭의와 성례성: 기독교 공동체 정의의 주체(Justification and Sacramentality: The Christian Community as an Agent for Justice)*는 현재 실행위원회의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WCRC 대표단은 이밖에도 교황청평화와정의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Peace and Justice, PCPJ)를 만났다. PCPJ와의 만남은 공통관심사에 관한 가능한 수렴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광범위한 토론은 생명의 경제와 도덕적 기업정신, 신학기반 개발을 통해 만인의 정의로운 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관리 등과 같은 주제들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다.

루터교세계연맹(Lutheran World Federation)

2006년에 루터파-개혁파공동위원회(Lutheran-Reformed Joint Commission)가 출범했다. 2006년과 2012년 사이에 세계 곳곳의 대표들이 양 기관의 신학간사들과 두 명의, 즉 개혁파 한 명과 루터파 한 명인, 신학 컨설턴트와 함께 모였다. 위원회가 받은 지시는 "세계 곳곳의 루터파-개혁파 관계를 관찰하고 조언하"며 "공통된 활동과 성명서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루터파-개혁파 관계에 관한 공동연구 촉진을 추구한다.

2014년에 출판된 *커뮤니언: 교회됨에 관하여(Communion: On Being the Church)*는 그러한 공동관심사를 개관하고 향후 양측이 동역할 만한 방식들을 제안하는 문서다. 본 문서는 종교개혁 시대의 분열의 뿌리까지 회고함으로써 시작한다. 문서는 한 때 우리를 분열시킨 원인 중 일부가 수백 년이 지나 덜 중요해졌다는 점과 종교개혁 교회들 사이에 상호 인정과 공통된 삶에 관한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공유된 역사와 이해 그리고 수 십년간 이루어진 공통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접근가능한 공유된 삶의 충만함을 주장하고 누리지 않았다. 가시적 일치와 실현은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었다... 공유된 교회사와 교회론과 교리적 합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커뮤니티를 실천적 실재로 만들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진다. 단순히 현재 영적 일치 혹은 미래 종말론적 일치에 호소하는 것만으론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나님이 주신 일치는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적 실재로 만들기 위해 일하라고 부르고, 우리가 변화를 받도록 도전하고, 우리를 교회됨의 새로운 방식으로 부른다.

대화들은 또한 일치와 교회 사역에 대한 글로벌 장벽을 겨냥했다. 분열은 신학 문제라기보다는 더 빈번히 우리의 (루터파 혹은 개혁파) 정체성을 형성하는 인종과 민족성, 경제계층, 언어 그리고 문화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장벽들은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예를 들면, 로마가톨릭이 지배적인 지역에서 개신교가 소수를 차지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전통적인 에큐메니칼 관계가 어려운 반면, 북미에서는 물질주의 문화가 교회의 정의추구를 갉아먹는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이 이 두 그룹의 교회들은 서로를 인정해 왔으며 연합회중을 구성하고 공통의 선교기회를 포함한 동역을 오래 해왔다. 보고서는 풀뿌리 수준의 더 큰 협력을 긍정,권장하며, LWF 교회들과 WCRC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연합으로 수행하되 오직 따로 해야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따로 사역하기로 한 룬트원칙(Lund Principle)을 따르길 요청한다.

WCRC와 LWF는 또한 행정 협력에 관해서도 이 원칙을 따르며, 공동 예전과 다른 자료 개발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자체 신학교들도 자료를 공유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양 기관은 또한 상대측 회의에 대표들을 계속 파송하며 통합접근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활동들(예: HIV/AIDS, 경제 불의, 불법 부채, 기아, 인권, 환경정의 문제, 용수권 등)에 대해서 프로그램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올해 총회는 “비텐베르크 증거”라고 명명된 공개 선언문을 비텐베르크 시에서 선언할 것이다. 이 공동 증거는 하나의 분열된 교회의 비극을 고백하고 두 기관이 수십 년 헌신한 대화의 열매를 천명하고 세계 곳곳의 회원교회들이 연합을 위해 취한 새로운 조치들을 축하할 것이다.

칭의교리공동성명서

로마가톨릭교회와 루터교세계연맹은 수년간 대화에 헌신하다가 1999년 칭의교리공동성명서(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JDDJ)에 서명했다. 거기서 가톨릭과 루터파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칭의론에 관한 트리트공의회와 정죄와 루터교 고백서들이 이 성명서에 제시된 가톨릭과 루터파의 칭의 가르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JDDJ는 차별화된 합의의 방법으로 “이 공동 이해”를 확립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나머지 차이점을 훨씬 더 원대한 공유된 확신 안에 뚫으로써 차이점과 합의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JDDJ는 다른 신학 전통들을 서술하지만 공동 이해의 관점에서 본질이 아닌 강조의 차이라고 본다.

WCRC는 그 문서에 연대하도록 초대받았다. 2010년 통합총회는 “WCRC 안에서 칭의교리공동성명서에 연대하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회의를 가지기로 ”동의했다. 연대 과정에서 연대하게 될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도록 초대된다.

- JDDJ에 기초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신앙을 통한 칭의에 대한 공통 이해”가 있다는 것을 선포한다.
- 그 목소리를 차별화된 합의에 자기 목소리를 추가하고 이 공동 이해에 비추어 칭의론 표현에 사용된 다양한 신학 언어가 더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한다.
- 에큐메니칼 대화를 발전시키는 기여로서 칭의 이해에 대한 독자적 강조점을 표현한다.
- 신학적 연구와 가르침과 선포에서 칭의의 공동이해를 심화하려고 함께 노력는 헌신을 지지한다.

2016년 5월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실행위원회는 JDDJ에 연대하자는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자고 건의했다. 실행위원회는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항상 개혁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라는 개혁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 공동 합의가 약속하는 새로운 에큐메니칼 실재를 포용했다. 동시에 실행위원회는 향후 칭의이해에 관한 에큐메니칼 대화에 대한 개혁주의 기여로서 연대성명서(Statement of Association)가 칭의와 정의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신학자 한 그룹이 일부 교회와 협력자의 반응들에 기초하여 성명서 본문을 수정하여 공통된 칭의 이해에 대한 개혁주의 기여를 더 가시화했다. 문서 구조를 결정하는 제목들은 WCRC의 JDDJ 연대를 안내하는 개혁주의만의 강조점을 가리킨다.

- “우리는 합의를 듣고 일치한다.”
- “우리는 JDDJ의 독특한 통찰력의 일부의 진가를 특별히 인정한다.”
- “개혁주의는 특정한 강조점과 추가 통찰력을 가져온다.”
- “우리는 칭의와 정의 간의 통전적 관계를 강조하길 원한다.”

개혁주의만의 강조점에 관한 마지막 두 요점은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언약 신실성, 그리고 칭의받은 자들 가운데 선행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칭의와 정의간의 관계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이 마지막 부분은 아크라고백과 벨하고백을 인용하고 “신자들은 자기 사회 안에서 유지하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배한다”는 칼빈의 확신을 인용한다.

2016년 가을에 회원교회들의 JDDJ에 대한 회원교회들의 일반 피드백을 요청했다. 전반적으로 피드백은 긍정적이었다. 12월에 사무소에서 그 문서에 대한 공적 연대를 추진하도록 승인했다. 회원교회들은 이 연대에 얽매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수준에서 JDDJ에 관한 에큐메니칼 논의를 하도록 초대받았다

올해 총회 중에 JDDJ에 연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예배가 비텐베르크에서 열릴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일치를 향해 가는 도상의 또다른 중요한 발걸음이다.

다른 에큐메니칼 사역

앞에서 보았듯이, WCRC 사역의 많은 부분이 에큐메니칼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WCRC는 많은 에큐메니칼 협력자와 더불어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미 설명한 대로 하노버로 이전한 이후 WCRC 스텝은 더 의도적으로 제네바 기반의 에큐메니칼 협력체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했다. 이전에는 단순히 같은 복도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정기적 에큐메니칼 사역 이외의 에큐메니칼 참여는 대부분 총무 사무실에 집중해 있다. 이 중 일부는 (LWF와 CWM과 같은) 세계기독교커뮤니언 간사 연례 컨퍼런스나 다른 에큐메니칼 기관의 총회 참석과 같이 정기적이다. 이 중 일부는 크리스 퍼거슨(Chris Ferguson)이 세계기독교협의회의 정의평화순례를 위한 준거그룹의 공동조사위원로 섬기는 것과 같이 더 특수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 많은 부분이 특별 행사다. 총무가 참석하는 그런 수 많은 행사 중 두 가지 사례만 여기 소개한다.

크리스 퍼거슨 총무는 2015년 중동크리스천대회(Congress of the Christians of the Middle East) 발제자 중 한 명이었다. 이 행사는 중동지역의 크리스천을 지원하는 레바논계 단체인 마론파 동맹(Maronite League)이 주최했다.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 전통의 대표들은 지속적 핍박에 처한 중동,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크리스천들에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중동 크리스천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대회에 이틀 동안 참석했다.

퍼거슨은 2016년 9월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개최된 제 30차 국제평화회의(International Meeting for Peace)에 크리스천과 무슬림, 유대인, 불교인을 포함한 십 수 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참석했다. “평화의 갈증. 대화하는 종교와 문화”를 주제로 모인 이 3일간의 회의는 국제적으로 방송된,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 종교간 행사로 마감했다.

다른 기독교 커뮤니티들과의 대화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면 5장 참고.

제 7 장 : 전환과 도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요 보존자시며, 우리를 세계 창조와 구속의 협력자로 부르신다. WCRC는 풍요한 유산을 가지고 새로운/갱신된 운동에 참여하면서 재정적 도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범세계적 불의, 영적 갱신의 필요 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WCRC는 우리 커뮤니티가 약속받은 새로운 부요함이 확장될 수 있는 가족부대를 준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2011 전략계획).

항상 변화하고 도전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로가 된다. 2010년 통합총회는 통합된 생산적 미래에 대한 원대한 희망을 제공했다. 즉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과 개혁주의에큐메니칼협의회(Reformed Ecumenical Council)에서 나온 신설 WCRC는 “연합으로 부름받고 정의에 헌신”했다. 그간 이 목적을 위해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투쟁과 어려운 도전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투쟁했으며, 이 변화와 재건의 시기를 통해 다시 희망을 발견한다.

재정적 압박

연합을 통해 WCRC가 된 두 기관도 예산 도전에 낮설지 않았었다. 두 기관의 재정을 합병하려는 계획과 기대는 지연되긴 했지만 결국 성공했다. 그러나 재정수지를 맞추고 기관을 움직이기 위해 감원을 포함한 예산 삭감이 있었다.

실행위원회는 그 전략계획에서 그 기관의 “핵심”을 위해 회원교회들이 기부한 수입을 통해 모금하는 헌신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특별 프로그램 사역을 위해 다른 자원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했다. 핵심 예산을 회원 수입에 맞추고 회비 수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회규모와 국제경제조치를 포함하는 몇 요소들을 감안한 공식(formula)이 결정되었다. 이 공식에 따라 회비가 늘어난 교회도 있었고 회비가 줄어든 교회도 있었다. 안타깝지만 모든 회원교회가 이 새로운 회비구조를 충족시키진 못했다. WCRC는 핵심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기금을 모금하는 데 계속 도전을 받았다.

또한, WCRC는 환율요동으로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 여러 해 동안 미국 달러화만이 스위스 프랑화에 대해 약화되었다. 2010년에는 유로화도 같은 경로를 따르기 시작했다. 스위스 당국은 자국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WCRC가 수입의 대부분을 유로화나 달러화로 받고 대부분 비용은 프랑화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WCRC의 재정 안정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이 도전을 보충하기 위해 WCRC는 다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자원들을 찾았다. 전략계획의 부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WCRC 자원을 강화하려는” 모금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1. WCRC 비전과 사명을 위한 기금을 조달하는 자원을 개발하기. 이것은 WCRC의 전반적인 모금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
2. 프로그램들을 위한 자원 찾아내기. 이것은 WCRC가 기꺼이 ...하려고 하는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한다.
3. 핵심 예산을 위한 자원을 강화하기. 회원교회들이 이것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4. WCRC와 그 기부기금을 위해 평생 기증과 다른 장기 기증 찾기.”

(2011년 전략계획)

2012년 5월 실행위원회는 지역별 기금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선교협의회(Council for World Mission)에 상당한 보조금을 요청하는 “WCRC 유지기금 발의 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경청했다. 새로운 개발디렉터(Director of Development)은 이 초기 노력을 조직화할 것이고 만약 성공한다면 궁극적 목표인 천만 파운드(1400만 프랑)의 유지기금을 5년 안에 모금하기 위해 계속 일할 것이다. 실행위원회는 이 계획과 더불어 모금 노력을 위해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에도 동의했다.

2012년 9월 개발디렉터는 이 제안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실행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그 계획은 2013년까지 특정 기간 안에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했다. “실행위원회가 유지기금을 위해 채택한 목표는 기금개발을 위한 경험과 인프라가 제한된 기관에게는 지나치게 야심찬 것이다.” 실행위원회는 또한 “재정적 제약 때문에 기금개발 디렉터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동의했다.”

이러한 차질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계선교협의회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를 통해 1백만 파운드의 보조금이 WCRC에 제공되어 천만 프랑의 기부금 목표(향후 6년 안에 모금하기로 재설정됨)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종자돈이 되었다. 이 보조금은 이후 CWM 기금으로 변경되어 자금안정화 보조금으로 재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은 WCRC와 CWM 전반적인 선교협력과 공동목적을 갱신하고 강화하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WCRC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WCRC의 전반적인 재정준비기금을 거의 바닥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현재 수지균형으로 재구축하기 위해, 복음주의교회연합(Union of Evangelical Churches)의 60만 유로의 큰 기부와 같은 다른 후원을 끌어오는데 기여했다(세부사항은 8장 참조).

많은 연구와 노력과 협의를 거친 후 글로벌 기부금 모금 캠페인이 여러 사정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세계의 여러 지역은 기부금 캠페인을 지원한 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이전에 그런 캠페인을 지원했던 지역에서도 최근 수년간 기부금에 기여해 달라는 호소가 크게 감소했다.

새로운 집을 찾아서

운영비용을 위한 기부기금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수입을 조달할 만한 중요한 공급처를 찾지 못하자 WCRC 재정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 우려가 통합총회에서 제기되었고 2012년 실행위원회 모임은 제네바를 떠나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요청했다. 이 토론을 예측한 2011년 실행위원회는 임원들에게 “그 [이전 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건의하도록” 요구했다. 임원들은 이 요구에 주도면밀하게 참여했고 2012년 실행위원회에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실행위원들은 선택사항들을 논의했고 WCRC가 그 사무소를 물리적으로 제네바에서 떠나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강세인 프랑화의 부담으로부터 적어도 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대책위원회는 사무소 보고서에서 개발된 요소들을 활용하여 세 가지 중요한 기준에 근거하여 가능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도록 요구 받았다.

- 제한된 자원의 관리
- 정의 문제에 대한 정직성
- 회원교회들과의 연대

처음에는 새로운 가능한 장소로 7개국의 십여개 도시를 조사했다. 그 나라들에 대하여 생활비, 재정금융 유연성, 정치적 안정과 자유, 인권 문제 그리고 이민정책 등을 평가했다. 머서글로벌(Mercer Global)은 물론이고 이전 및 통화 전문가들을 통해 구체적인 물가지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었다.

이 조사를 마친 후 도시들의 순위를 매기자 세 도시가 계속고려 대상 상위에 올랐다. 즉, 독일의 하노버, 남아프리카의 요한네스버그, 네덜란드의 유트레히트가 상위에 올랐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세 도시를 모두 여행하면서 회원교회들과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대책위원회가 유의미하다고 확인한 문제들의, 방대한 검사항목 대조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실사 작업을 마쳤다. 또한, WCRC 스태프 회원들을 만나 그들의 통찰과 개인적 정황과 기관의 우려들을 파악했다.

2012년 10월 임원들은 세 도시 각각을 제네바는 물론이고 다른 후보지와도 비교한 대책위원회의 세부 보고서를 받았다. 임원들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WCRC 사무소를 하노버로 이전하자고 건의했다. 임원들은 실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건의안의 다음 요인들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독일 교회들은 하노버를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추천했고 독일교회에 미친 개혁교회의 기여를 축하, 증진하려는 바람으로 WCRC를 환영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WCRC에 공법상 법단체의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것을 통해 WCRC는 특정한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이민과 고용 규정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진다.

복음주의개혁교단(Evangelical Reformed Church, 독일)은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으로 손조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번창하는 매력적인 도시 중심부에 자리잡은 칼빈 센터에 아주 적당한 사무공간을 제공했다.

독일복음주의개혁교단의 행정 사무실은 재정관리와 기술관리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하노버에는 꽤 큰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하노버의 생활비는 제네바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제네바의 생활비 지수는 \$100인데 비해 하노버는 \$66로 측정되었다(이전에 관한 임원보고서, 2012년 10월).

이전 문제에 관해 고려한 투입에는 실천적, 재정적 요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전에 대한 고려가 주로 WCRC의 위태로운 재정 상태에 기초하긴 했지만 대책위원회와 임원들은 신학적, 상징적 고려에 대해서도 약간 논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정보 기술은 21세기 조직들의 사역 및 교류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고속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WCRC 사무소가 어느 도시에 있든지 무방하다. 세계적인 가족인 WCRC는 지구 전역에서 계속 모임을 개최하고 모든 대륙에서 온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 순회 활동 방식이 계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들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것은 많은 교회가 회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회의주최자로 활약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WCRC 가족의 활기에 결정적이다.

이전은 또한 WCRC의 가치와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 사무소가 어디 소재하든지 WCRC는 단순히 재정압박에만 반응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의의 메시지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WCRC의 아크라 고백서(Accra Confession) “경제와 지구의 정의를 위한 언약”(2004)이 기여한 분석과 언어는 지금 세계 전역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글로벌 경제 정의와 창조 보전을 부르짖는다. 아크라고백서는 일부 사람과 지역만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현 신자유주의 글로벌경제시스템의 혜택을 본다는 것을 주시하고 그것을 죄로 명명했다. WCRC는 정의를 그 지도원리로 계속 유지하면서 교회 안팎의

불의한 구조 때문에 소외된 이들의 근본적인 평등과 권한 이양에 대한 새로운 에큐메니칼 비전을 구현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WCRC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WCRC는 어디에 소재하든 그 현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필요가 있긴 하지만 신학적 숙고의 자각 때문에 에큐메니칼 헌신 또는 정의와 예언적 증거에 대한 헌신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을 것이다. WCRC는 하나님의 미래를 포용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 충실하려는 결의를 가지고 움직인다(이전에 관한 임원보고서, 2012년 10월)

실행위원회는 2012년 11월에 그 건의안을 비준했다. 또한, 하노버 이전 작업을 2014년 1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스텝 및 활동

WCRC는 이전을 준비하고 그에 따르는 제반 필수 작업을 하면서도, 신입 총무 인선에서도 나름 도전을 겪었다. 세트리 니요미(Setri Nyomi)의 두 번째 임기가 2014년 4월에 마감될 예정이어서 그의 후임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2012년 실행위원회가 인선위원회를 임명했지만, 추천할 만한 후보를 찾지 못했다. 실행위원회는 2013년 회의에서 후보자를 찾기 위한 시도로 즉흥적인 분별절차를 취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되어, 다른 인선위원회를 임명하여 결국 2014년 실행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2014년 5월 회의에서 크리스 퍼거슨(Chris Ferguson, 캐나다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이 총무로 선출되어 임명을 받았다. 같은 회의는 니요미의 봉사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의 사역기간을 9월 1일까지 연장했다. 동년 8월은 퍼거슨이 하노버에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두 사람의 업무이전 기간이 되었다.

변화가 일어난 스텝은 총무만이 아니었다. 소통 분과 실행간사는 하노버로 이전하는 대신 캐나다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후반 그 후임자를 찾는 인선작업이 수행되었다. 새로운 실행간사로 필 타니스(Phil Tanis, 미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가 하노버 이전이 완료된 후인 2014년 2월에 임기를 시작했다.

스위스에서 일했던 행정지원 스텝 중 아무도 독일로 옮겨가지 않았다. 그들이 마지막 해에 그만두었을 때 그 직위를 충원하지 못해, 역량에 긴장이 발생했다. 특히나 이전 업무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그러했다. 재정 코디네이터의 직위는 유지되지 않았지만, 그 업무는

복음주의개혁교회단(Evangelical Reformed Church, 독일)의 (급여지불과 시스템과 관리를 포함한) 지원과 회계업무 행정보조원 고용을 통해 재조정되었다.⁵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먼저 제도적 기억에 간극을 조성했고 그 기억을 계속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전하는 기간 동안 시스템이 어느 때처럼 유지될 수 없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세 명의 행정 스태프만이 이전했기 때문에 (그 중 한 명인 니요미는 이전이 완료된 직후 떠났다) 정례 업무와 지식을 상실했다. 게다가 운영의 기초적인 부분들이 바뀌어야만 했다.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활용해야 했고, 에큐메니칼 센터의 WCC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교체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WCRC는 그 오랜 심오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전혀 새로운 기관이 되었다. 특히 행정적으로 그러했다. 이 시스템의 운영속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고향에 정착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다.

그리고 변화는 계속된다. 두웨 비써(Douwe Visser)는 의료휴가를 연장한 후 2017년 8월에 조기은퇴를 할 계획이며, 2010년 통합 이전까지 세계개혁교회연맹에서 신학과 에큐메니칼 참여 분과 실행간사로 봉사한 비씨는 이후 WCRC 신학과 선교와 커뮤니티 분과 실행간사로 봉사했다. 도라 아르체-발렌틴(Dora Arce-Valentin)은 2012년에 쿠바 사무소에서 WCRC의 정의와 협력 분과 실행간사로 섬기기 시작했다가 2013년에 제네바로 옮겨왔고 그 후 하노버 사무소로 옮겼고 올해 말 임기를 마감할 것이다. 이 두 직위에 대한 인선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다. 두 직위의 후임자들이 2018년 1월까지 시작할 수 있기 바란다.⁶

새로운 사역 방식

커뮤니언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은 최대요인은 하노버 이전이다. 새로운 재정 코디네이터는 2015년 실행위원회 보고할 때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재정 분석으로 WCRC가 제네바에 남아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으리라는 점이 이미 분명해졌다고 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8장 참조). 핵심예산용 수입을 안정화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야 하긴 하지만,

⁵ 2011-2016 사이에 WCRC를 섬긴 스태프 중에서 임기를 마친 이들은 다음과 같다. 크리스틴 그린웨이(Kristine Greenaway, 통신 분과 실행간사), 웨이 초(Yueh Cho, 재정 코디네이터), 파라이스 레아몬(Páraic Réamonn, 협력기금 보조원), 하르트무트 루케(Hartmut Lucke, 번역가/통역사), 앙뜨와네뜨 비써(Antoinettee Visser, 협력기금 보조원). 행정 보조원으로 페니 블라슈트(Penny Blachut), 클라우디아 듀발(Claudia Duval), 다프네 마르틴-그나나다손(Daphne Martin-Gnanadason), 빅토리아 코스치안(Viktória Kóczian), 이다 밀리(Ida Milli).

⁶ 스태프 회원들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다. 아루나 그나나다손(Aruna Gnanadason, 신학 컨설턴트), 게르하르트 플렌터(Gerhard Plenter, 재정코디네이터), 파울 오펜하임(Paul Oppenheim, 특별 프로젝트), 베르너 외커(Werner Joecker, 개혁주의협력기금 코디네이터), 김문기(Moon-Kee Kim, 평화와 개발 코디네이터), 안나 크뤼거(Anna Krüger, 재정 및 소통 코디네이터), 한스 레싱(Hanns Lessing, 총회 코디네이터), 카트리나 메르츠(Katrina Mertz, 총무 보조원), 암리타 페루말라(Amritha Perumalla, 신학과 정의 보조원).

준비기금의 증액과 매우 성공적인 총회예산 모금은 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도 WCRC는 미래를 향해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14년 이후 개혁주의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증액이 있었다. *세계를 위한 빵(Brot für die Welt)*의 탁월한 지원 뿐만 아니라 타볼라 왈덴스(Tavola Waldense)의 *오토페르밀레(Otto per Mille. 천명 중 여덟)* 프로그램이 추가로 개혁주의협력기금과 WCRC 정의 프로그램과 글로벌평화화해이니셔티브를 위한 기금에도 3년간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복음주의선교사역(Evangelische Missionswerk)*은 선교 이니셔티브를 위해 연례 지원금을 계속 증액하고 있다. 또한, 교회간개발협력기관(Inter-Church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은 세계선교협의회와 더불어 정의와 협력 사무소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신기술의 영향력에 관한 임원보고서가 파악한 이해는 정확하다고 입증되었다. 세계 전역에서 회의를 주최하려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가상(virtual) 소통과 중대한 사역에 회원교회들을 참여시키려는 총무의 전략적 헌신 사이에서 WCRC 사무실 위치는 예전보다 덜 중요해졌다. 제네바에선 같은 빌딩에 있다는 것만으로 에큐메니칼 협력자들과 일상적 연결이 맺어졌지만, 이제는 가장 중대한 절차들이 있는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에만 WCRC가 참여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전의 충격은 재정 위기에 대한 재정적,조직적 대응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제네바를 떠난 것은 수많은 의문을 계속 제기한다. 많은 사람은 WCRC의 역사적 근본에 대한 정체성이 어려움을 겪었다. 스위스 회원교회들에 속한 많은 이들이 그 견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아마 이 염려들은 이전에 관한 임원보고서를 재인용함으로써 가장 잘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은 세상에 축복을 가져올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을 보여준다. 우리는 제네바를 떠나는 고통이 새로운 에큐메니칼 시대를 낳는 산고를 표현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옛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영을 속고했다. 야곱은 자기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그들을 이집트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셨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갈릴리 사역의 평범한 지역 아젠다가 우주적 규모의 선교로 확장되었다. 초대교회는 처음 상상했던 바와 달리 유대교 내 개혁운동이 아니라 세상이 전혀 본 적이 없는 유형의 포괄적인 신앙가족이 되는 것이 소명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우리 인간은 한 가지를 마치고 난 다음 다음 다음 일을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것을 다급하게 서두르시어 우리가 안간힘을 써야만 언뜻 볼 수 있는 미래를 낳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갱신과 변화를 추구할 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연합의 소명과 정의에의 헌신을 계속 실천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심을 신뢰한다.

제 8 장 : 재정

우리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모두가 기여하고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고 결실있게 윤리적으로 잘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재정적,인적, 그리고 기타 자원을 포함한다. 자원은 WCRC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커뮤니티이 되도록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는 커뮤니티의 삶과 사역을 위해 자원을 발굴하고 접근해야 한다. WCRC는 가족으로서 자원을 서로 나누고 나눔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의 모든 지체가 재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들로 기여하도록 강하게 권면해야 한다(2011년 전략계획).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의 영업 수입은 일차적으로 회원교회들로부터 나온다. 사실 핵심 비용, 즉 인건비, 운영비, 통신비, 그리고 교통비는 회비만으로 조달하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은 추가로 모금하는 것이 WCRC의 오래된 목표였다.

모든 회원에게 정당한 몫을 내도록 장려하는 시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회원교회에 정해진 회비는 2012년 실행위원회가 채택한, 교회 규모(회원수)와 교회가 소재한 국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고려한 "공평한 기부금" 공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중립적인 "이론적 기부역량"은 회원교회의 지불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더 늘릴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부금공식에 관한 보고서가 주장하듯이 "한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회원교회들에게 특별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될 수 있다. 이는 자국 내에서 소수집단으로 인정된 이들이나 성장을 즐기는 회원교회에게는 (격려의 방편으로) 기부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특정 상황에선 증액이 있을 수도 있다"(2012년 실행위원회 회의록).

기부금공식을 정한 후, (이전에 통합총회에 정해진 대로) 미화 500불이 최소 회비로 확정되었다. 유의할 사항은 새로운 기부금공식이 몇몇 교회의 회비를 상당히 인상하는 영향을 미쳤고 모든 교회가 아직은 이 수준까지 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⁷

⁷ 공식적으로 정해진 회비보다 더 지불하는 몇몇 회원교회에 회계와 재정위원회가 진심어린 감사를 전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앞에서 주목했던 것처럼(7장 참조), WCRC는 통합총회 이후로 심각한 재정 도전을 경험하곤 했다. 이 기간 회비 수입의 금액은 계속 줄어들었다. 스위스 프랑화가 극적으로 절상되면서 이 상황이 악화되었다.

MEMBER CONTRIBUTIONS BY REGION

Region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n CHF	In CHF	In EUR	In EUR	In EUR	In EUR
Africa	67,403	92,046	48,556	35,394	15,313	47,787
Latin America	4,176	28,421	4,784	8,488	4,159	5,521
CANAAC	249,348	341,847	227,508	230,028	275,951	265,268
Asia	54,092	210,925	60,770	53,902	59,909	56,378
Pacific	4,705	37,522	12,054	4,720	3,714	3,844
Europe	662,392	703,692	510,646	468,230	473,013	401,523
Total In CHF	1,042,116	1,414,453				
Total In EUR	846,719	1,173,565	864,319	800,761	832,059	780,321

WCRC는 또한 몇가지 준비기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는 최소한 2011년에는 목적성 기금이였다. 그 의미는 그것들이 모든 프로그램 프로젝트와 총회와 개혁주의협력기금 등을 포함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불황대비” 준비기금은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WCRC를 돕는 기금인데 2011년에 아슬아슬하게 낮았었다.

Funds	2012	2016
	In EUR	In EUR
Earmarked	1,215,000	1,704,000
Rainy day	152,000	2,355,000
Total	1,367,000	4,059,000

WCRC가 제네바를 떠나는 이전을 고민했을 때도 준비기금, 특히 “불황대비” 준비기금을 증액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독일교회들, 특히 복음주의교회연합(Union of Evangelical Churches)과 세계선교협의회(Council for World Mission)의 기부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현재 WCRC는 핵심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는 지속적인 도전이 있긴 하지만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 있다.

INCOM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n CHF	In CHF	In EUR	In EUR	In EUR	In EUR
Membership contributions	1,042,116	1,414,453	864,319	800,761	832,059	780,321
Extra contributions for reserves	-	362,190	143,989	1,411,500	300,284	6,719
Others	342,637	410,476	367,567	413,875	418,445	768,255
Total	1,384,753	2,187,119	1,375,876	2,626,136	1,550,788	1,555,294

WCRC가 제네바에서 하노버를 이전한 것은 재정적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노버의 생활비가 제네바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므로, 인건비를 예전만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비용절감이 나타난다. 그러나 제네바와 하노버 사이에 스태프 조정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상근직 실행위원수준의 재정코디네이터 직위는 이제 복음주의개혁교회(Evangelical Reformed Church, 독일)로부터 급여를 받는 WCRC 스태프인 행정적 재정보조원이 자원봉사하는 재정코디네이터로 대체되었다.

EXPENS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n CHF	In CHF	In EUR	In EUR	In EUR	In EUR
Personnel costs	868,001	852,699	844,257	522,634	517,682	558,411
Others (mainly operational costs)	410,063	864,700	315,250	549,054	318,677	667,319
Contributions for reserves (incl. extra and own contr.)	81,443	444,979	193,446	1,531,036	690,778	309,488
Contributions from European membership fees for WCRC Europe Trust Account	25,246	24,741	22,923	23,411	23,651	20,076
Total	1,384,753	2,187,119	1,375,876	2,626,136	1,550,788	1,555,294

핵심 예산 이외의 WCRC 기금 프로젝트는 주로 두 프로그램 사무실에서 (물론 실행간사진을 통해서) 기안한다. 그 프로그램들의 실행간사진은 지원 스태프와 더불어 총회가 지시한 대로 프로젝트와 회를 진행시킨다. 이것을 위해 그들도 자체 모금을 하며, 비용을 충당할 기금이

모일 때만 업무를 수행한다. 프로그램 사무실들이 수행하고 모금하는 사역 유형의 사례가 아래 차트에 나온다.

PROJECT EXPENDITURES 2016

Funds	Amount	Percentage
	In EUR	In %
GIT	54,632	9
Theological Dialogues	12,960	2
Mission	30,587	5
Georges Lombard Prize	47	0
Accra +10	23,113	4
Oikotree	795	0
NIFEA	54,776	9
Gender Justice	2,535	0
TESF	9,306	2
Women Ordination	9,659	2
Reformed Partnership Fund	249,493	40
Regional Empowerment	50,268	8
Global Internship Programme	58,014	9
Global Initiatives -		
Korea Reunification Process	17,165	3
Global Initiatives -		
Peace and Reconciliation Colombia	41,995	7
Total	615,344	100

개혁주의협력기금(Reformed Partnership Fund)은 세상을 위한 빵(Brot für die Welt, 독일)과 베스트팔렌개신교회(Evangelische Kirche von Westfalen, 독일)와 감리교회와 왈도파교회연합(Unione delle Chiese Metodiste e Valdesi, 이탈리아)의 오토페르밀레(Otto per Mille)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간헐적인 특별기부금들을 통해 모금한다. 개혁주의협력기금을 통해 WCRC는 교회와 그 주변 공동체의 삶에 중요한,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선교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회들에게 작은 보조금과 다른 자원들을 제공한다.

오토페르밀레(Otto per Mille) 보조금은 또한 NIFEA(신국제재정및경제건축장 참조) 프로그램과 글로벌평화이니셔티브(Global Peace Initiatives)에 기금을 제공한다.

안정 그러나 지속되는 도전

지속적인 예산 도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은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가 기금을 모으지 못하거나 비용을 삭감하지 않으면 (이 안은 고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필수 금액을 고려하면 매우 어렵다) 예측가능한 미래에도 예산 도전이 계속될 거라고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음 실행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감사하게도 WCRC는 재정적으로 4년 전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에 있으며 더는 존재 자체가 위협당하지 않고 있다.